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청년들의 불안,
자기관리 및 유동하는 삶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민 선

2014년 8월

제주지역 청년들의 불안, 자기관리 및 유동하는 삶

지도교수 이 상 철

김 민 선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김민선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6월

Insecurity, Self-Management and fluid Life of Young People in Jeju Area

Min-Se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ang-Cheol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2014.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uk-Joon Kim, Prof. of Sociology

Thesis director, Young-Pyo Seo, Prof. of Sociology

Thesis director, Sang-Cheol Lee, Prof. of Sociolog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ii
【국문초록】	iv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이론적 배경	4
1) 선행연구 검토	4
2) 이론적 자원	8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제주지역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실천의 방식	13
2) 연구방법	13
3) 심층면접대상자들의 특성	14
II. 신자유주의와 제주도의 청년정책	20
1.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제주도의 개발정책과 청년정책	20
2. 제주사회의 불안과 위기	25
1) 출구를 찾는 청년들	25
2)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포섭된 대학사회	27
III. 학교·가정·노동사회에서의 훈육과 경쟁규범의 내면화	31
1. 학교: 서열화된 공간	31
1) 신체에 대한 통제	32
2) 공동체의 파괴: 학교폭력	34
3) 서열화의 관리자	36

- 2. 가정: 반면교사의 공간 39
 - 1) 경제적 위치를 인지하는 공간 39
 - 2) 노동자로서의 삶이 전이되는 공간 40
 - 3) 진로의 선택 : “너의 삶은 내가 만들었어” 41
- 3. 노동사회 44
 - 1) 홀로 싸워야 할 위협으로 가득한 세계 44
 - 2) 열정과 안정 사이에서 46

- IV. 유동하는 삶의 유형과 실천 49**
 - 1. 삶의 유형 분류 기준 49
 - 1) 노동의 결속 정도에 따른 삶의 양상: 고정성과 유동성 49
 - 2) 자기의지: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 51
 - 2. 청년들이 처해있는 삶의 유형 53
 - 1) 달성형 54
 - 2) 정착형 56
 - 3) 도전형 58
 - 4) 방황형 63
 - 5) 유예형 66
 - 3. 유동하는 삶의 다양한 실천과 그 모순 70
 - 1) 목표와 현실: 자기의지의 유예 71
 - 2) 개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기관리 72
 - 3) 소비: 일시적 보상과 불안정한 노동의 유지 76

- V. 결론 79**

- 【참고문헌】 82**
- 【Abstract】 85**

<표 목차>

<표 1>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성	15
<표 2>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별 세부추진 계획 및 연차별 실적	22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순이동자수 추이 (단위 : 명)	26
<표 4> 심층면접대상자의 삶의 유형 변화	70

<그림 목차>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순이동자수	26
<그림 2> 제주도내 국립대학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28
<그림 3> 제주지역 국립대학 학보사에 게재된 취업관련 기사	28
<그림 4> 총학생회 야외 현수막	29
<그림 5> 취업 동아리 팸플렛	29
<그림 6> 학내 취업 현황 현수막	30
<그림 7> 유동하는 삶의 유형표	52

【국문초록】

제주지역 청년들의 불안, 자기관리 및 유동하는 삶

본 연구는 불안정한 노동구조에서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과 실천방식 그리고 청년들이 영위하게 되는 삶의 특성에 주목한다. 현대사회의 유연화 된 노동시장은 개인들에게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은 체제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한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에 순응하는 주체, 자기경영을 통해 이러한 경쟁체제에 대응하는 주체의 모습을 논의하기 위해 푸코의 규율권력 및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 도구로 삼았으며, 현대사회가 개인들에게 강제하는 삶의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바우만의 액체근대 개념을 원용하였다. 또한 제주 청년들의 불안을 보다 생생하게 가시화하기 위해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우선,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양상을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을 살펴보고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검토했다. 제주도의 청년정책은 일시적 고용을 기조로 운영됐으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대학사회에 전가했다. 제주도와 대학의 청년정책에 따라, 대학사회와 학생들은 고용불안을 감지했으며 학업과 생활전반을 취업 중심으로 맞춰나갔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가정·학교에서부터 삶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 일부 심층면접대상자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경제적 차별과 성적에 따른 서열화를 경험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삶을 체감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감을 체득했다. 개인들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푸코가 말하는 규율권력에 순응하는 주체로 형성되며, 동시에 경쟁규범을 확립한 자기경영적 주체의 모습을 보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노동사회로 진입하는 심층면접대상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주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제주지역 청년들의 삶은 노동의 결속도와 자기의지의 표출도에 따라 구분됐다.

우선, 삶의 양상을 이루게 하는 노동의 결속정도를 바우만의 액체근대 이론을 통해 구성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이 결속되어 평생의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초기근대와 달리, 현재 액체근대로 오면서 노동의 결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이 노동의 결속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고정성, 노동의 결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삶의 양상은 유동성을 띠게 된다. 다음으로, 삶의 양상의 변화에 대해 각 개인들의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의지의 표출정도가 삶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목표지향성으로, 자기의지의 표출정도가 삶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경우를 현실수용성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 유형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청년들의 개인적인 평가와 성찰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들의 삶의 양상을 공통의 사회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개고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달성형’은 목표지향성과 고정성 두 가지를 만족하는 유형이다. 다른 유형에 비해 경제적 안정성과 직업의 지속성, 사회적 명예가 보장된다. ‘정착형’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자아실현보다는 고정성을 지향하는 삶을 택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기에 목표에 대한 열망, 후회, 집착 등이 나타난다. ‘도전형’은 목표지향성과 유동성이 교차하는 삶의 모습이다.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있으나, 경제성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 ‘방황형’은 유동성과 현실수용성의 두 성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경제성 및 직업의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며, 적성에 맞는 일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유예형’은 각 유형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노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장기적인 준비를 한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유동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삶의 양상을 이루는 노동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정도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유동하는 삶 속에서 개인들은 자기 의지의 표출을 미루거나 유예하며, 유예된 시간을 자기관리의 실천으로 조직하거나 소비생활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불안은 결코 해소되지 않으며, 다양한 유형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제주 지역 청년들의 유동하는 삶에 내재된 불안을 풀기 위해서는 주체성의 회복, 교육제도의 변화, 청년들에 대한 심층조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I. 서론

1. 문제제기

KBS 드라마 스페셜 단막극 <중학생 A양>(2014, 백상훈 연출, 김현정 극본)은 중학생 A양이 자살했다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동시대의 또 다른 중학생 ‘은서’(여 주인공)의 삶을 나타낸다. 이 단막극은 중학생 A양이 왜 자살하게 됐는지를 은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 A양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연출자는 은서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는 경쟁자가 되고, 교사는 성적을 서열화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은서의 부모는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급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한다. 은서를 일류 학원에 보내 좋은 성적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부모의 모습은 현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학부모의 모습에 가깝다. 그 안에서 은서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친다. “신발끈(관계를 의미)이 풀렸는데 어떻게 달리라는 거야”라며 부모와 교사에게 대꾸하기도 한다. <중학생 A양>은 강남의 중학교를 기본 배경으로 삼았지만, 관계가 약화되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필자는 은서를 현대사회의 개인들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바라보고자 한다.¹⁾

만약 중학생 은서가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다음의 통계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체감 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년 10월까지 청년 실업자는 32만 4000명에 불과한 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110만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실상의 실업자란 현재 실업자는 물론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 본인의 의사나 노동능력에 반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실업자를 반영할 경우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2011년 1~10월) 7.7%의 세 배인 22.1%에 육박한다

1) 드라마는 현실의 사례를 통해 재구성된다.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2013 서유정·이윤민·황승환·허강일·장경수·이광훈 등 연출), <부모VS학부모>(2014, 박진홍 연출)을 통해 실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경향신문, 2011. 12. 12).

2011년 OECD의 연령별 취학률의 국제비교에서 대한민국의 15~19세의 연령별 취학률은 86%이다. 미국이 80%, 영국이 78%, OECD국가 평균이 84%인 것에 비해서도 높다(OECD, 2013).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후, 사회에 나왔을 때 5명 중 1명은 예비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 사실상 세 가지로 좁혀진다. 안정적인 직업군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거나, 불확실하지만 꿈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방법,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에는 잡히지 않는 구직포기의 방법이다. 구직포기를 제외한 길은 계속된 준비를 동반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했지만 상황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취업준비전선에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제주지역의 경우,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다. 3차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 또한 고용이 장기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다른 곳에 비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분야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13). 그러나 현재 정책들은 일시적 고용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민·관·학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려 하지만, 인턴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즉, 기업에 대한 맞춤형 고용이 될 수는 있지만 고용의 지속성은 미지수이다.

제주도의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자살률은 16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제주일보, 2013. 03. 22). 이는 제주지역의 청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내는 불만의 목소리는 특수한 계기를 통해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고려대의 한 학생이 교내게시판에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의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²⁾

2) 12월 13일부터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는 ‘안녕들 하십니까’와 비슷한 대자보가 올라왔다. UC 버클리 등 외국 대학 학생도 이에 참여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의 한국사 전공 대학원생들은 “우리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성명을 붙였다. 건국대학교에서는 12월 15일부터 학내신문에 학생들의 대자보를 실었다. 12월 18일 중앙대, 동양대 교수들도 대자보를 게시했다. 페이스

이 대자보를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제주지역에 대학생들도 불안정한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다. 이는 취업준비에 매몰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표출이면서 한국 사회에 무관심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대자보의 전국적 게시는 한국사회에 나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억눌림이 일시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본 논문은 청년들의 일상의 서사를 반영한다. 가정, 학교에서 경쟁의 규범을 내면화한 개인들이 노동사회에 진입해서 어떠한 삶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려한다. 청년실업이라는 고용구조의 제한적 특성에 대한 문제제기만이 아닌, 청년들의 생애 전반에 존재하는 삶의 불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청년들의 직업적 선택과 관련한 내면의 고민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와 그 실천양식을 살펴보려 한다. 자기계발의 양상은 그들의 삶 전반을 감싸고 있는 불안의 존재이며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실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경쟁의 규범을 가지고 노동사회에 진입한 개인들이 선택하게 되는 삶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의 청년들에게 놓여있는 구조적 상황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제주에 미치는 여파를 제주도정의 노동정책과 대학사회를 통해 분석한다. 도정의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일시적 고용은 제주도내 대학사회의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가속화한다. 3장에서는 심층면접대상자들의 서사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삶을 조명한다. 학교에서의 서열화에 따른 경쟁, 가정에서 느끼게 되는 경제적 중요성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노동사회에 진입한 개인들이 안정적인 삶과 불안정한 삶의 기로에서 갈등하게 한다. 4장에서는 청년들의 처해있는 삶의 모습을 분석하고 네 가지의 지표를 통해 삶을 유형화한다. 네 가지의 지표는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고정성)와 그렇지 않은 경우(유동성), 자신의 의지가 삶에 표출되는 경우(목표지향성)와 그렇지 않은 경우(현실수용성)로 나뉜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노동사회에서 거치게 되는 개인의 삶은 노동의 불안정성에 따른 자기관리의 장기화·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주변 타자들과 비슷한 불안을 영위하며 계속해서 순환한다.

북의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지는 12월 14일 하루 사이에 2만명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경향신문, 2013. 12. 13).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필자는 고용시장에 대한 연구와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가 한정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실업문제를 초래한다. 청년실업이 증가되는 요인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 나뉠 수 있는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용흡수력의 저하로 인해,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상승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기에 청년실업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영주, 2009; 김용성, 2008; 김석진·양희승, 2004 재인용). 따라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되기 어렵다.

청년들은 개인의 노력과 고용시장의 변화에 맞춰 취업해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여겨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한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고학력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 자기관리에 대한 투자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찬영(2008)은 노동수요보다 많은 고학력자가 공급될 때 고학력자의 상대임금은 떨어지고 기업측면에서는 저학력 근로자를 고학력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학력에 비해 노동수요가 부족하기에 고학력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평가한다.

고용구조의 특성은 청년들에게 고학력화를 중단하고, 공급된 일자리에 맞게 취업할 것을 요구한다. 최요철 외(2008)는 청년층의 취업보류 또는 대기자의 증가가 나타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구조의 불안정한 특성에 대비해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의 청년들은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생존을 위해 안정적이고 괜찮다고 여겨지는 일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체제를 공고화할 뿐이며 청년들의 심층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 청년들의 심층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년들이 놓여있는 시대적 상황이 기존의 세대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는 세대담론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를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은우는 특정 집단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서의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과 사회화로 인한 출생 코호트(cohort, 동기집단)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세대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서 특정 기간 내에 주요 생활사건을 공통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코호트는 단순한 인구학적 의미에서의 세대가 아닌, ‘사회적 세대(social generation)’를 의미한다. ‘사회적 세대’는 특정 시대에 존재하는 행동양식, 정서, 경험, 가치관 및 신념의 단위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인지방식을 특정 유형으로 체계화하는 사회적·역사적 의식생산의 집단적 기제를 의미한다(주은우, 1994: 75; 이영룡, 2013 재인용).

80년대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하던 민주화세대와, 90년대의 정치·문화적 변화 이후에 생겨난 신세대는 시대적 상황마저도 다르다. 신세대는 자본주의의 풍요를 맛본 세대이기도 하다. 이 세대에게, 97년 IMF 체제는 큰 상처가 되었다. 스스로를 ‘신세대’, ‘X세대’로 명명하면서 감성·소비적 성향을 보이며 개인성과 자아 정체성, 주체성을 내세웠던 이들이 급속한 경제침체기와 실업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 반면 현재의 20~30대 초반 세대를 아우르는 ‘88만원 세대’ 담론은 그러한 ‘자유’와 주체성을 맛보기도 전에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라난 경우다(이영룡, 2013).

청년들은 갖가지 자격증과 영어시험성적,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한 ‘스펙’과 싸우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에 의해서 미래 전망이 지극히 취약해진 현실 속의 현재 20대들은, 정치에 대한 개입의 여지는 축소되었고 이러한 삶의 조건에서 최대의 화두는 취업이며 경쟁을 통과 의례로 한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엄관용, 2006; 이영룡, 2013 재인용).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세대를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88만원 세대』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는 청년들에게 놓인 억압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기존의 세대와 다른 세대를 호명하여 시대적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었다. 88만원 세대라는 용어의 등장으로 청년에 대한 담론의 판도가 바뀌게 된다.

2007년도에 발행된 우석훈의 『88만원 세대』³⁾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07년

3) 지금의 20대 중 상위 5% 정도만이 5급 사무원 이상의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 88만원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존의 청년들에게 민주화시대의 저항을 했던 청년세

전후 한국의 20대를 지칭'한다. 비정규직 평균 급여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73%를 곱한 금액이 88만원이며, 한국의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세대가 된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88만원 세대』는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개인들이 돌파할 수 없는 일상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 따라서 『88만원 세대』는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위기를 진단하지만, 일상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존재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실천양식을 이전세대와 다르게 보지 못한다. 따라서 저항하지 않는 20대를 비난하는 20대 포기론⁴⁾으로 이어지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눌려진 개인들이 느끼는 불안에 따른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흐름이 다른 측면에서 시작된다. 그러한 흐름은 『위풍당당 개청춘』(유재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란 말인가』(엄기호, 2010),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었나』(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오찬호, 2013), 『잉여사회』(최태섭, 2013)로 이어진다.

유재인은 『88만원 세대』에서 ‘짱돌을 들고 투쟁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념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준비하는 개인의 실천에 초점을 둔다.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고 여기기에, 청년들은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리화하기도 한다. 유재인은 『위풍당당 개청춘』을 통해 순응하는 주체의 모습과 스스로와 싸우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유재인, 2010).⁵⁾

대처럼, ‘현재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저항하라’라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청년이 아닌,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에서 논의되고 문제화되었다. 이와 같은 세대담론은 기성세대에 대한 경종의 목소리와 함께 20대에게는 ‘사회를 고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통해서 시작된다.

4) 2008년의 촛불집회는 그러한 발단의 시작이었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하에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식 운영방식과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행태에 이르러, 시민들과 10대들이 주도한 촛불 집회가 2008년 5월부터 넉 달 동안 지속되었다. 최초의 여론은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10대들에 대한 찬사였다. 그러나 찬사는 현장에서 20대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바뀌었고, 여론에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토익책을 붙잡고 있는’ 20대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되었다(미디어스, 2013. 10. 31).

5) ‘오늘날 이십대들이 대외에 시들해진 건 선악 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일 거다. 적이 모호해진 시대에 분노를 배우는 건 어렵다. 물론 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범인이 떠오르지 않는다. 무능하여 이 사회에 들어온 나 자신? 아니면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전두환에게는 짱돌을 던지면 되지만, 신자유주의랑은 어떻게 싸우면 되지? 386세대들의 말투를 빌리면 “노동자 착취구조는 견고해졌지만 범인은 없다”(이명박? 이명박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를 좀 과대평가하는 거다) 어떡하지? 우리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내 영어 점수라도 높여놓는 수밖에. 이렇게 부단히 자신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떠오르는 묘수가 없다. 그래서 우린 욕먹는다. 정치의식 희박하고 이기적이라고 열정은 없고 약했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꼭 그렇게 폐로 모여서 이를 악물고 투쟁해야 저항인가?’ 유재인의 위풍당당 개청춘은 소속 없는 청춘, 소속을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을 그린다. 꿈꾸기에 현실은 버거우며, 노력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는 일상의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서사를 통해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를 질타한다(엄기호, 2010).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로 존재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었나』(2011)와 ‘잉여’가 이득이 아닌, 청년의 노동력이 사용되지 못하고 쓸모없는 ‘잉여’가 되는 시대의 모습을 분석한 『잉여사회』(2013)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저작들은 사회구조적 상황에 놓여있지만, 파편화되어 하나로 묶어내기 힘든 청년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2013, 오찬호)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를 찬성하고 경쟁을 옹호하게 하는 시스템을 담아낸다. 현재의 청년들은 적자생존의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과 경제적 위치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은 최태섭의 ‘잉여사회’⁶⁾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열정조차도 노동이 되는 ‘열정노동’⁷⁾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잉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정노동을 진행하던가, 이도 아니면 잉여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계보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과 함께, 동시에 잉여라는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흐름은 담론화된 큰 틀을 보여주기보다는 개인들의 역력된 선택과 순응하는 모습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을 그린 서동진의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을 통해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탄생되는 맥락을 보여

보다는 운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20대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기성세대들의 논리와 달리 정치에 대한 무감각은 파편화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유재인, 2010).

6) 최태섭의 ‘잉여사회’는 이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에서 ‘인정받기위해 존재하려는 청년’과 사회에서 ‘잉여인간으로 존재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의 청년’이다. 잉여사회는 후자의 측면에서 사회를 바라보고자 한다. 잉여인간의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인터넷 세상에서의 익명화된 개인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사실상 그들의 익명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타자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기에 파괴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세계는 이들을 난감해하지만 세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한, 이들을 낚지 않을 방법이 없다. 세계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잉여로 만든다. 폭동이 일어나든 체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별달리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습하고 진압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윤들을 창출해내는 것이다(최태섭, 2013).

7) 한윤형 · 최태섭 · 김정근의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는 다양한 지점에서 존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그들은 화려한 직업으로 전망받는 연예인이나 이전에는 하등시되었던 프로그래머, 영화와 문화산업 종사자들, 서비스직종 종사자, 창업과 영업 종사자, 정당 및 시민단체의 상근자들, 그리고 고시종시자들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노동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공통적인 논리를 펼치는데, 바로 ‘열정의 노동화’이다(한윤형 · 최태섭 · 김정근, 2011).

준다. 이러한 주체의 모습은 단지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자기계발이 아닌, 담론화 되고 통치화된 전략의 모습인 것이다(서동진, 2009). 서동진은 역량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경영 담론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담론의 전략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구조적 틀 속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경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동진의 연구는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전략적 틀을 보여주지만, 일상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의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일상에서 청년들의 실천방식을 분석하고 실천 속에서 갈등하는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통해 사회전반에 작동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

논문은 크게 푸코와 바우만의 이론을 통해 현대사회의 특성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규율권력에 의해 복종 당하던 개인은 신자유주의로 오면서 통치술을 스스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개인의 모습은 푸코의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우만의 액체근대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규율적 주체에서 자기경영하는 주체로

푸코는 주체에 대해 논의해왔다. 푸코의 주체는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되는 양상을 취한다. 첫째, 1970년대 초기 저작인 『감시와 처벌』, 그리고 『성의 역사, 앎의 의지』에서의 주체는 일상의 권력을 통해서 포섭되고 구성되는 주체이다. 이러한 주체는 규율권력을 통해서 통치된다. 규율권력은 개개인의 살아 있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개개인이 추구하는 삶을 이상적인 표준에 맞춰 정상화하려는 시도이다(Foucault, 1990; , 2011). 이러한 주체는 학교, 가정을 통해 순응하는 주체로 만들어진다. 규율권력은 일상에서 작동된다. 부모의 훈육, 학교의 교육제도, 노동사회가 취급하는 기술에도 권력은 내재되어 있다. 규율권력은 각자의 삶에서 흡수되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게 한다. 규율장치들은 신체에 대해

작동함으로써 개개인에게 규범을 내면화시킨다. 또한 개개인들의 복종화 과정에서 규범을 내면화할 수 없는 ‘비정상인’들은 감옥, 정신병원 등의 장치들에 감금되고, 거기서 다시 이들의 규범화가 시도된다(Foucault, 1994). 감시와 처벌의 집필시기가 1970년대 전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 저작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복지 국가적 통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14: 9).

두 번째, 1970년대 후반의 저작인 『생명관리정치』를 통해 주체의 모습은 경쟁하는 주체로 변모된다. 당시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에서 생명관리정치에 대한 개념적 의미보다는 독일과 미국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푸코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통치성과 권력이 작용되는 것에 대해 연구한다. 푸코의 논의에서는 복지국가의 통치성과 규율권력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권력형태 이행이 뚜렷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규율권력과 신자유주의 권력은 뚜렷하게 이행했다기보다는 동시적이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의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의 경험 속에서 그러한 복합성이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권력이 생산하는 주체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규율적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기업가’이며 ‘자기경영의 주체’이다(Foucault, 2012: 319; 佐藤嘉幸, 2014: 54).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분석하는 서동진과 연결된다. 서동진은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담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규범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자신을 나사의 부품으로 여기는 조직인간에서 벗어나겠다는 노동자의 자유에 대한 욕망은 다시금 속박된다. 획일적인 훈육의 공간을 박차고 나오려는 학생의 욕망은 자기주도적 학습주체를 형성하려는 학교의 욕망과 교차한다. 이미 주어진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와 희망을 꿈꾸는 주체의 욕망은 ‘자기계발, 자기경영’하는 주체를 통해 그/그녀의 삶을 자기책임과 자기실현의 문제로 각색하는 일상생활의 권력과 손을 잡는 것이다(서동진, 2010).

(2) 액체근대에서의 개인

필자는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통해서 개인화된 주체에 주목한다. 이는 푸코의 자기경영하는 주체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푸코의 자기경영하는 주체는 바우만의 액체근대의 개인과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액체근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 특성과 액체근대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바우만은 『액체근대』 (*Liquid Modernity*)에서 초기근대와 액체근대로 근대시기를 구분한다. 초기근대는 고체성과 무거움, 견고성을 갖춘 시기라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액체근대는 액체성과 가벼움, 유동성을 갖춘 시기이다. 바우만은 근대가 그 시작에서부터 ‘견고한 모든 것을 녹이는’ ‘액화’과정으로 규정한다 (Bauman, 2009: 9).

서구에서 두 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세기 중반부에 완성된 초기근대는 자본과 노동의 상호결속을 중심으로 사회를 견고하게 구조화했던 시기였다(박미선, 2010).⁸⁾ 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고임금·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는 경제체제로, 이것은 노동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인 테일러주의, 뉴딜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확립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와 연결되어 기능했다. 프레이저는 이런 포드주의적 통치를 푸코적 의미에서의 규율 권력과 중첩시키면서 사회의 전체화,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의 사회적 집중, 주체의 자기 규제라는 점으로 요약한다.

1989년 이후로 오면서 포스트 포드주의적 통치성의 특징은 전 지구화된 다층적 시스템, (일국적인) 사회적인 것의 해체, (포드주의적인 주체의) 자기 규제의 쇠퇴와 폭력적 억압의 회귀라는 세 가지 지점으로 요약된다(佐藤嘉幸, 2014: 27). 바우만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근대성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규정한다. 현단계의 근대성에서 모든 견고한 것은 다시 유동적으로 되는데, 이 액화된 것을 다시금 견고하게 만드는 새로운 구조 없이 ‘액체화’가 진행된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바우만이 말하는 ‘액체근대’는 대략 1980년대 서구에서 발흥하기 시작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와 궤적을 같이 한다(박미선, 2010).

8) 바우만은 포드자동차(Ford Motor Company)를 초기 근대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예로 읽는다. 바우만에게, 포드자동차의 공장은 거대한 자본과 노동이 공장이라는 육중한 물질적 공간에서 서로 감시하며 결속하는 원형감옥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Bauman, 2009: 89-96, 재인용). 이 시기에 일어난 근대의 액화과정은, 맑스가 일찍이 간파한 대로 “견고했던” 구질서와 이전의 생산양식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의 추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바우만의 시기적 구분에 따라 개인의 특성을 푸코의 논의와 연결한다면, 바우만의 초기근대인 포드주의는 복지 국가적 통치가 이루어지며 푸코의 규율권력이 일상의 개인들을 지배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개인들은 보다 노동에 결속되어 있었다. 1970년대에는 포드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가 부상한다.⁹⁾ 1980년대의 액체근대의 개인들은 삶의 위험성을 느끼며 스스로 이에 대해 통제해야 하며 자신과 싸워야 한다. 푸코는 『생명관리정치』를 통해 경쟁하는 주체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는 바우만이 비유하는 의자 빼앗기 놀이의 참여한 개인들의 모습과 닮았다. 의자 빼앗기 놀이에서 사용되는 이 의자들로 개개 남녀들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이 놀이는 결코 성사되는 법이 없다. 조금의 휴식도 없으며, 우리의 무장을 풀고 최종 목적지에 당도했다는 만족감도 없다. 걸어온 길의 끝에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전망은 없다(Bauman, 2009: 56).

(3) 주체의 회복

푸코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주체의 모습은 초기근대에서 규율권력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의 모습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후 액체근대의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하는 주체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푸코의 초기연구는 규율권력인 미시권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생명관리정치』로 오면서 거대권력, 즉 국가의 통치에 대해 주목한다(Foucault, 2012: 453-454). 푸코는 『성의 역사』를 통해 ‘자기에 의한 자기의 구축’을 통해 기존의 주체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주체의 구축이 권력의 호명에 응해 권력을 자신 안에 내면화하는 예속화의 실험이라면, 자기에 의한 자기의 구축은 권력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재창조하려는 저항적 자기변형의 실천인 것이다(Foucault, 2012: 463). 『성의 역사-자기에의 배려』에서 푸코는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전향하는 것, 자기 자신 안에 은거하는 것,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 자신의 변형을 행복하게 하는 태도를 거론하고 있다(Foucault, 1990).

푸코는 권력관계란 최소한의 자유의 형식을 갖춘다고 주장한다. 저항의 가능성

9) 미국은 고임금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을 문제로 여겨 저임금체제로 변화한다. 독일의 경우도, 시장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했으며 이후 신자유주의로 편향한다. 한국의 경우, 반공체제와 함께 국가위주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고임금체제를 이루게 되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무너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복지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이 존재하며 역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한다. 권력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유 또한 편재하는 것이다(Foucault, 1994) 푸코의 주장은 두 가지의 주체를 의미한다. 첫째, 스스로를 경쟁적인 주체로 만들어내는 자기 통치의 주체이다. 둘째,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난 주체로서 자기에 의한 자기 구축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경쟁적인 주체가 되어간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며 자신을 통제하며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타자와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경쟁을 유지하지만 연대의식은 좌초되어간다. 경쟁적 주체가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푸코가 논의하는 자기에 의한 자기의 구축은 어떠할까? 바우만은 현대사회의 개인화된 특성에서 저항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논의한다. 바우만은 초기근대에서의 물리적 억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로워졌다는 착각을 지적한다(Bauman, 2009: 82). 또는 현재의 문제점을 인지하지만, 더 이상 나은 세상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 때문에 저항이 좌절된다고 본다. 본래 유토피아는 고생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에 반해 사냥꾼의 유토피아는 고생이 결코 끝나지 않는 꿈이다.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삶의 현실이 된 유토피아는 검증이 필요 없는 것이다(Bauman, 2010: 172-175). 따라서 바우만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체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하나는 이미 체제에 포섭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지옥 안에 있음에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체제에 내면까지 포섭되거나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온갖 종류의 압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워야만 하는 주체의 모습이다(Bauman, 2010: 172-175). 이러한 주체는 체제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갖는다.

이상의 이론적 자원들을 통해서, 초기의 근대는 규율권력을 통해 훈육되어 개인들의 몸에 내면화된 것이라면, 신자유주의에 속하는 액체근대의 시기에 오면 규율권력은 자기경영하는 주체로 내면화된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현재 규율권력과 생명관리정치의 주체가 동시에 나타난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정, 학교에서의 규율화된 권력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며, 유동화된 현대사회에서 경쟁규범을 내면화하는지를 볼 것

이다. 그것은 곧 현대사회 고용의 불안정성이 개인들을 자기경영하는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해명해하려는 시도이자 현대사회의 역동성 후면에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표출시키려는 시도이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제주지역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실천의 방식

이 논문은 제주지역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실천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들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암울했다. ‘88만원 세대’는 2007년 전후의 20대의 상황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중반에 해당한다. ‘삼포세대’¹⁰⁾의 경우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로서 ‘88만원세대’가 논의하는 것보다 세밀한 일상의 문제를 담고 있다. ‘88만원 세대’와 ‘삼포세대’는 개인들의 열악한 상황과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88만원세대’는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층을, ‘삼포세대’는 그러한 기반위에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삶의 흐름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위와 같이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의 표출은 단순한 요인으로 발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삶 속의 불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불안의 요인과 영향, 발현방식, 순환과정 등을 다층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를 병행했다. 연구대상자에게는 미리 준비된 질문지와 녹취 및 정보 이용 동의서를 먼저 전달했다. 준비된 질문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필요시 질문할 수 있는 반표준화된 심층면접으로 진행했다.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취업준비의 배경과 진로준비의 경험에 대

10) 2011년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 특별취재팀이 만든 신조어이다. 취재팀은 ‘삼포(三抛)세대’를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층”으로 정의했다(경향신문, 2011.05.11).

한 것이었으며,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한 갈등상황에 대한 실천방식과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1차 면접을 통해 노동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배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들었으며, 취업준비과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면접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2차 면접을 통해서 가정·학교에서 타자와 충돌하는 상황도 볼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했다.

▶ 직접 의뢰 : 연구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연구자가 주변에 직접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 중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직접 의뢰했다. 이 방법을 통해 인터뷰한 대상자는 총 7명이다.

▶ 소개 받기 : 이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배경을 연구자의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라 판단되는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총 3명이 그러한 경우이다.

사례조사는 1대1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들은 대다수가 기존에 이미 대면한 경험이 있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이나 사건을 필자가 들은 적이 있었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조건 속에서 면접시간(오전, 오후)과 장소(도서관, 카페, 면접자 자택, 자영업장)가 정해졌다. 2014년 3월~4월 사이, 개인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면접이 진행됐다.

심층면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제주지역 내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입학했던 대학교에 방문해 청년 취업과 관련하여 교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통계 자료 및 언론자료를 수집 활용했다.

3) 심층면접대상자들의 특성

심층면접대상자들의 특성은 <표1>과 같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했다. 성별은 여성이 5명(F1~F5), 남성이 5명(M1~M5)이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이다. 직업으로 볼 때 각종 고시를 비롯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2명(F3, M5), 상대적으로 수입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은 3

명(F5, M1, M4),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5명(F1, F2, F4, M2, M3)이다.

거주상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명(F4, F5, M2, M3, M4)이다. 이들 중 F4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남자친구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자취하는 경우는 5명(F1, F2, F3, M1)으로 F2는 서울 고시원에서 살고 있으며, F3는 서울에서 언니와 함께 자취하고 있다. F1과 M1은 제주시에에서 자취하고 있다.

<표 1>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성

대상자 (연령)	현 상태	이전 직장경험	특이사항	결혼 예정 (1~2년)
F1수진 (34)	강사 · 대학원생	-서비스직 -행정사무 -식당보조	-서울에서 진로준비경험 (2년) -현재, 제주지역 대학원 박사과정 -제주에서 자취	예정
F2은주 (28)	기자 (계약직)	사무 (계약직)	-서울에서 3년간 진로준비 (현재) -서울에서 고시원에 거주	
F3현주 (28)	취업준비	-항공사 (계약직) -대출업무 (계약직)	-승무원이 꿈 -은행 두 곳에서 2년씩 근무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현재) -서울에서 자취	예정
F4수연 (28)	비전일제 유치원 근무 (계약직)	유치원 근무	-서울에서 진로준비경험 (1년) -유치원 4시간만 근무 (현재) 향후 전일제업무로 변경하고자 함 -부모와 남자친구와 거주	예정
F5윤정 (28)	사무직 (정규직)	없음	-공무원 시험 2년 준비 -회계사무 3년 근무 (현재) -부모와 거주	미정
M1윤기 (31)	시민단체 (정직)	축산업 (계약직)	-공무원 시험 준비경험 (2년) -학생운동경험 있음 -시민사회 3년차 근무 (현재) -제주에서 자취	
M2창운 (28)	정당	-아르바이트 -시민단체 업무 보조	-시민사회 및 정당 경험 -정당 근무 (현재) -부모와 거주	
M3민수 (27)	자영업(동업), 시민단체 (반상근)	-기자 (계약직) -인턴	-시민사회 및 정당 경험 -시민사회 반상근 (현재) -대학 휴학상태 -부모와 거주	

대상자 (연령)	현 상태	이전 직장경험	특이사항	결혼 예정 (1~2년)
M4승현 (27)	공무원	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 (1년 6개월) -공무원 시험 합격 (현재 근무 중) -부모와 거주	
M5남일 (27)	공무원준비생	없음	-공무원 시험 3년 준비 -공무원 직렬 변경 후 준비 (현재) -부모와 거주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취업 준비경험이 있었다. 취업 준비기간은 상당히 길었다. 이러한 준비기간은 노동을 통해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투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면접대상자들은 삶에 대한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느꼈다.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열악해진 생계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이후의 삶을 고민하기도 했다. 면접을 통해 청취된 서사에는 가정·학교 그리고 노동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개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그에 따른 실천의 모습이 담겼다.

수진(F1)은 초등학교 시절 3년간 따돌림을 경험한다. 학창시절 따돌림 경험 때문에 사범대나 교대 쪽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제주에 있는 농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친척은 ‘앞으로 중국이 뜰 것’이라며 중문학과를 권유한다. 학과에는 들어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휴학을 했다. 이후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지낸다. 그러던 중 가고 싶었던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20대 후반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가고 싶었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2년간 타지생활을 했다. 현재는 제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강의를 통한 부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석사과정을 준비하면서 대출한 학비와 생활비를 갚고 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생계가 보이지 않아 힘겨워한다.

은주(F2)는 고등학교시절, 우연히 친구를 통해 ‘패션잡지’를 보게 된다. 잡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재미를 느낀다. 은주(F2)는 부모님에게 복지를 연계하여 전공할 수 있는 학과를 추천받아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도청에서 계약직 업무를 보면서 일하고 싶던 잡지사 에 틈틈이 입사지원서를 냈다. 인턴이지만 원하던 잡사에서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하게 된

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경을 허락받는다. 인턴 급여가 40~5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짧은 인턴 기간이 끝난 후, 매달 나가는 고시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관심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1년 정도 일하게 된다. 이후 관심을 갖고 참여하던 청년허브의 연계사업이 확대되면서 00에서 취재업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허브에서 10개월의 계약 기간 중 1달 쯤 근무 중이다.

현주(F3)의 경우, 학창시절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다.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직업이 승무원이라고 생각하고 항공운항과에 진학한다. 이후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하지만, 외모가 승무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면접관의 이야기를 번번이 들곤 했다. 원하는 곳에 채용이 되지 않자, 친구의 소개로 은행업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승무원에 미련이 있던 현주(F3)는 다시 승무원 채용을 준비한다. 어학실력을 중심으로 보는 외국항공사를 목적으로 지원하지만, 합격하지 못한다. 이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은행에서 2년간 대출업무를 본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현주(F3)는 외모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양악 수술을 준비 중에 있다. 수술 후 다시 승무원에 도전하려 한다.

수연(F4)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학비의 부담이 적은 전문대로 진학한다.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었던 수연(F4)과 달리, 부모님은 취업이 잘되는 간호사나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것을 권유한다. 대학졸업 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유치원 선생님이로 일하게 된다. 일을 하면서도 업무가 맞지 않았다. 우연히 유치원에서 외부선생님을 초청하여 동화구연을 하는 것을 보고, 동화구연, 아동요리, 스탬프아트, 폼패브릭 등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이후 제주도에 내려와서, 배웠던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자 한다. 현재는 비전일제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결혼문제도 있어 내년부터는 전일제업무를 하려고 한다.

윤정(F5)은 언니들의 경험을 통해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제주지역의 국립대학교에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간호사나 유치원교사가 될 것을 요구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회계학과에 진학했다. 입학과 동시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다.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 했던 돈으로 시

힘을 준비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학졸업 이후 1년을 더 준비했으나, 돈이 다 떨어졌다. 부모님의 걱정과 취업에 대한 압박에 회계직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3년째 근무 중이다. 결혼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윤기(M1)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했다. 군대를 다녀오고 2007년에 복학해보니, 학생회의 성향이 비운동권으로 바뀌어 있었다. 2007년의 분위기는 취업이 안 되면 “공무원이나 해보자”며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여겼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취업전망이 좋지 않았다. 농협을 준비하던 윤기(M1)도 당시 여파로 채용이 중단되자, 농업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2년간 시험을 준비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계약직을 뽑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향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윤기(M1)는 축산업 계약직에 입사 지원한다. 10개월간 일을 하면서 인신공격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경험했다. 관심분야인 시민사회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던 중, 아는 선배의 권유를 통해 000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됐다. 현재 3년차로 일하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

창운(M2)은 중학교를 진학할 때 동사무소에서 교복을 지원받아야하는 등 가정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다. 부모님의 장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한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 가난하고 삶이 바뀌기 힘든 것이 과거청산이 잘 안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학교를 타지려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기를 원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창운은 학생들을 모아 사회문제를 다루는 독서모임을 연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 현재는 00정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수(M3)는 중학교에서 1년 6개월 동안 따돌림을 당한다. 당시 가정에도 불화가 있었다. 이후 주동자가 전학을 가면서 따돌림에서 벗어난다. 고등학교 진학 때부터 문학준비생이 되고자 원하던 대학에 수시를 지원했으나 탈락한다. 제주도내 대학에서 철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정당에도 가입하여 활동한다. 선배의 소개로 협동조합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시민단체에서 반상근을 하면서 자영업을 운영 중에 있다.

승현(M4)의 경우는 학창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나 원하던 진로가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지인이나 어른들을 통해서 공무원이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매번 들어왔다. 대학시절 학과는 법학과를 진학한다. 이후 졸업 시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20학점이나 낮은 행정학과로 전과하게 된다. 1년~1년 반 정도 준비하는 동안 두 차례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다. 현재 제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업무가 적응되고 여유가 생기면 어학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려한다.

남일(M5)은 고등학교시절 중간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으며, 당시 인기학과였던 생명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진학 후 연구실에 들어갔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진로고민을 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의학전문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떨어지게 된다. 사촌형은 “공무원 시험은 하나만 통과하면 보장되니 시험을 준비해보라”며 공무원시험을 권유한다. 이후 1년 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나 재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방황하던 차에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 편입을 고민하기도 했다. 이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1차 산업의 소중함을 느낀다. 현재 직렬을 농업직으로 바꿔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은 면접대상자들의 대략적인 특성과 서사의 내용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기반아래 개인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며 이후의 삶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질문지를 구성했던 문제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의 개인적 위기가 사회구조적인 영향으로 보다 심화되었나? 둘째, 그들의 실천 방식이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며 관리·감독되는가? 셋째,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가? 이러한 문제설정은 그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한 일상에서의 통제 방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신자유주의와 제주도의 청년정책

이번 장에서는 제주지역 청년들의 유동하는 삶과 그에 따른 유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제주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가 한국 그리고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제주지역의 개발정책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청년정책을 분석한다. 제주사회의 불안과 위기가 내재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증상을 고찰하여 제주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과 위기를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제주도정의 정책이 대학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주목해본다. 대학사회를 통해 청년들이 불안과 위기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정의 정책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현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주지역 청년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제주도의 개발정책과 청년정책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심층적 신자유주의 단계로 이행하게 된 결정적 기점이었다. 김대중정부 시기에 신자유주의의 전반적인 틀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경험은 분명 ‘강요된’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지닌다(이병천, 1999). 신자유주의의 이행은 크게 거시건축경제, 대외개방과 자유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축으로 이뤄졌다. 특히 한국의 경제구조에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개방과 자유화, 구조조정 정책은 IMF의 계획대로 완전히 이행되었다(윤상우, 2013).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탈냉전, 금융 자유화, 재벌체제의 파행,

정치적 갈등, 해외 금융자본의 투기 등 수많은 조건과 배경이 얽힌 파국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해고, 이혼, 자살, 연쇄 부도, 파산, 신용불량, 주거지 박탈과 같은 일들이 두세 집 걸러 한 집씩 찾아들었다(최대섭, 2013). 이런 혼란 속에,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고민해 볼 여유가 없었다. 일반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자산증식, 주식투자, 경제적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 사적연금 및(연금) 보험을 통한 위기관리와 유연하고 창의적인 노동 등의 문화가 내면화되고 보편화된다(조영한, 2012). 사회적 위기와 불안은 가장 약한 집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집안의 가장들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통해 일자리를 잃자, 위기는 노년층과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노인들의 생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실업의 압박을 받으며 취업 예비군으로 전락했다.

신자유주의화의 여파는 지역으로도 파고들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기존의 개발주의적 정책에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더 강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제주사회변동론』 서설에서 이상철(1987)은 제주도의 개발이 중앙위주의 정책이었음을 꼬집는다. 제주는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개발주의의 여파로 인해 산업의 전 영역에 변화를 경험하고 주변부로 남게 된다. 이는 제주도의 개발이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 조용하도록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제주도는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을 처음 건의한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은 2001년 기본계획, 2002년 특별법 제정·공포, 2003년 2월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제주의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를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통로로서, 무비자(NO VISA)·무규제(NO REGULATION)·과감한 세제혜택(NO TAX)을 지향하는 준비 과정을 밟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기본접근은 외부지향성이다. 대규모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관광객 유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최근 교육·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전도면세지역에 이르기까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보다는 외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양덕순·강제상, 2007: 77).

그러나 신자유주의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제주의 경제구조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제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청년실업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 상당히 취약하다. 도내 사업장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다. 관광업의 경우 계절적 여건에 의해 수요가 좌우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주된 산업분야인 농·축산업의 경우도 FTA체결을 통해 위기감이 드리워진 상황이다(홍정순·채창균, 2011).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의 합은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기 어려운 원인이 된다.

이런 정책기조와 산업구조 아래, 제주도의 청년정책은 개발정책과 그 궤를 같이한다. 제주도가 내놓은 청년실업 해결책은 일시적 고용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었으며, 그 내면을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표2>는 제주도정이 조례에 따라 내놓은 2014년까지의 세부추진계획 및 연차별 실적을 담은 내용이다.

<표 2>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별 세부추진 계획 및 연차별 실적

분야	세부과제	과제별 일자리수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실적	2013 목표	2013 투자 예산	2014 목표
합계	-	20,000	1,175	3,354	12월 (3,492)	5,000	44,592	7,183
향토자원 5대 성장 산업	식품(창업)	355	11	68	31	50	670	103
	식품(농축수산)	1,820	126	174	115	250	11,186	470
	식품 (감귤식품 육성)	450	-	42	125	120	4,903	-
	한방·바이오	200	-	41	60	70	4,790	70
	물산업	235	25	56	22	30	TP 사업	
	신재생에너지	1,640	-	129	237	350	563	410
	프랜차이즈	200	-	15	6	30	250	50
소 계		4,900	162	525	596	900	22,362	1,103
첨단기술 4대제조업	해양레저장비	100	-	0	0	20	순수 민자	50
	레저스포츠용품 제조	100	-	-	-	-	-	50

분야	세부과제	과제별 일자리수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실적	2013 목표	2013 투자 예산	2014 목표
	스마트그리드	200	-	51	50	70	7,910	50
	IT융합산업 /벤처기업	200	-	50	33	70	8,138	50
소 계		600	0	101	83	160	16,048	200
기업유치	성장유망·타켓 기업유치(50)	1,000	40	57	133	320	-	200
	콜센터 유치	500	96	315	102	150	150	150
소 계		1,500	136	372	235	470	150	350
국제자유 도시 프로젝트	첨단과학 기술단지	1,325	34	179	78	200	JDC 주관 사업	100
	휴양형주거단지	1,550	-	6	2	-		1,225
	신화·역사공원	2,200	-	-	6	20		1,248
	서귀포관광미항	275	-	-	-	50		161
	헬스케어타운	1,400	-	-	-	20		1,400
	영어교육도시	450	-	170	136	40		51
소계		7,200	34	355	222	330	0	4,185
중소기업 육성연계	청년고용장려 사업	1,000	-	540	558	800	1,936	250
	사회적기업	1,000	145	314	211	220	3,140	250
	창업지원	400	95	130	232	250	-	50
소계		2,400	240	984	1,001	1,270	5,076	550
청년고용 촉진	해외인턴·취업	200	37	59	75	170	300	45
	취업연계 산업인력양성	2,000	313	487	619	700	370	500
	청년취업알선	1,200	253	471	661	1,000	286	250
소계		3,400	603	1,017	1,355	1,870	956	79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13

2013년 일자리창출 종합추진 계획은 총 일자리 5천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우근민 도정의 공약과도 직결된다. 이 정책이 추진하는 분야는 ‘향토자원 5대 성장 산업,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중소기업육성연계 일자리창출, 미래인재 육성분야’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고용률 47%달성, 청년실업률을 5%로 이하로 낮추는 데 목표를 갖고 있다.

첨단기술 신성장을 위한 제조업 분야나 기업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원을 통해야만 일자리의 유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연계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의 경우도 청년을 고용해주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유지되는 일시적인 일자리로 보인다. 제주도정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단기적인 고용률 늘리기와 개발정책의 아류에 그치는 이유다.

분야별 투자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반쪽짜리 고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고용에 있어서 추가되어야 할 점은 제주지역에 맞는 기업 활성화이며, 청년들의 욕구와의 불균형에 대한 보다 심층의 연구가 요구된다. 강승진(2010)은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의 경우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이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의견은 언론에서도 지적됐다. 올해의 7,00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절반 이상인 4470개의 일자리가 사실상 임시적 일자리로 채워지면서 고용의 질 향상에 한계가 보인다(제민일보, 2014. 03. 31).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또 다른 방식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에 청년들을 끼워 맞추는 방법이다. 2011년 ‘제주지역 청년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방안’은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의 ‘구인란’과 청년들의 ‘구직란’이 상응하는 지점을 통해 미스매치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제주도는 제주형 산·학·연·관 상생협력 시스템의 구축 등을 내놓는다(홍정순·채창균, 2011). 그러나 미스매치라고 표현되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문제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와 구직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간극이 큼을 의미한다.

제주도정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학생들이 노동사회를 경험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부터 그들을 관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는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에 그친다. 실질적인 대처방식은 기업에 맞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각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배워야 하며, 기업에 맞춰 자기소개서와 직종에 관련한 마인드를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학점관리의 차원이나 실습형식에서 그치고 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차원의 단기적인 인턴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정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노동시장의 유동성에 맞춰야만 하는 실천양식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것이다.

2. 제주사회의 불안과 위기

1) 출구를 찾는 청년들

제주도의 청년정책은 고용여건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에 타협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한시적이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이 취하는 방식은 스스로에 대한 관리와 실천이다. 제주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출구를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청년들은 열악한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취득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개발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지점에 일정부분 동의한다.¹¹⁾ 그들은 더욱 유연화 된 방식을 갖춰야 함을 스스로 체득하게 됐다. 이는 사회가 청년들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교육한 결과이다.

청년들은 제주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제주를 떠나버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이는 통계를 통해 드러난다. 2003~2012년도의 국내 인구이동통계 중 호남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¹²⁾, 제주의 인구는 2010년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최다 순유입 되었다. 2009년부터 제주도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인구가 크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2013). 이 시기의 10년간 연령대별 인구 이동의 합계를 보면 순유출은 10대 2518명, 20대 1만2562명, 순유입은 10세 미만 964명, 30대 3816명, 40대 2577명, 50대 2660명, 60세 이상 1363명으로 20대 이하의 빠져나간 인구가 많았고 30대 이상은 들어온 인구가 많았다(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2013). 전입자의 주요 유형은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제2의 인생을 살려는 국내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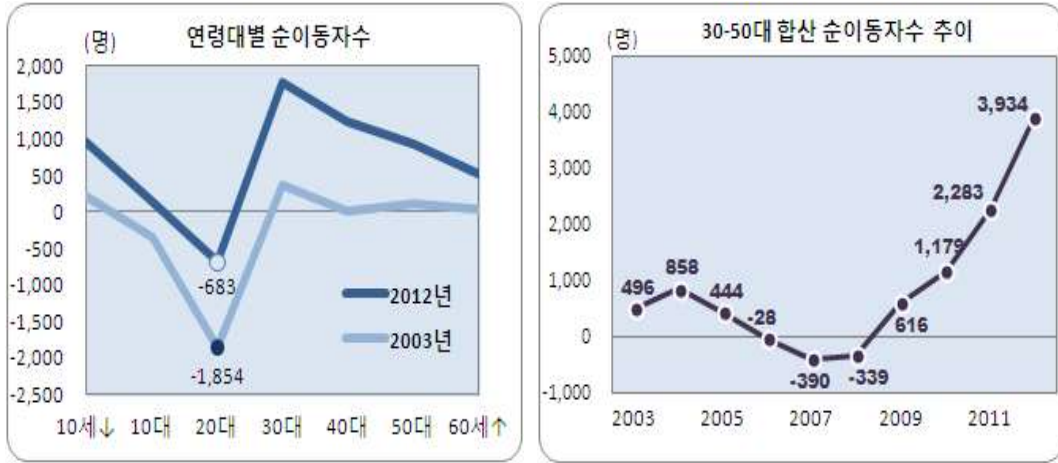
11) 2013년 4월 제주지역 대학생 427명이 한국공항 먹는 샘플을 증산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의 제주지역내의 분열과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제주도내 청년실업문제가 개발을 통해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주지역의 자원을 더 많이 판매한다면 제주지역내의 경제발전과 함께 청년일자리의 향상이 연계된다는 점이 주요한 주장으로 보인다(시사제주, 2013.04.17).

12) 이동현상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2013)

- 전 입 :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 출 :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순이동 : 전입 - 전출
 - 순유입(전입초과) :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경우
 - 순유출(전출초과) :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

제주도로 이민 오려는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순이동자수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2013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순이동자수 추이 (단위 :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10년간 합계
제주 (계)	-1,447	-83	-805	-1,902	-2,928	-2,236	-1,015	437	2,343	4,876	-2,760
10세 미만	211	326	9	-238	-176	-73	-29	383	527	964	1,904
10대	-338	-322	-347	-342	-312	-478	-324	-234	30	149	-2,518
20대	-1,854	-1,035	-1,009	-1,405	-2,134	-1,345	-1,221	-1,002	-874	-683	-12,562
30대	376	477	220	-212	-372	-129	298	559	831	1,768	3,816
40대	3	255	125	38	-150	-191	86	311	872	1,228	2,577
50대	117	126	99	146	132	-19	232	309	580	938	2,660
60세 이상	38	90	98	111	84	-1	-57	111	377	512	1,363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201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주지역의 10대, 20대들이 계속해서 제주도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상 다른 세대의 인구가 2008~2010년 사이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특히 20대 인구는 2012년까지도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주도라는 공간이 외부의 다른 세대들에게는 들어오고 싶은 공간이지만, 20대들에게는 나가야 하는 원인이 내재된 공간임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다양한 요인으로 청년들을 배제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청년 정책은 개발정책에 끼워져 있으

며, 실제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년 스스로의 관리 전략은 더 많은 경쟁과 함께 개인을 고립시키는 식으로 발전되며 제주를 떠나는 형태로 드러난다.

2)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포섭된 대학사회

교육부의 <2014 비전 및 중점과제>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분류되고 정원감축(최우수등급 대학 제외) 등 차등적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대학들이 공식적으로 퇴출될 경로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로 정원감축,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인수합병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교육부, 2014).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과 특성화사업 선정에 취업률을 정량지표로 선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했다(한겨레, 2014. 05. 16). 이런 정책에 따라, 대학은 ‘학문을 다지는 공간’이라는 측면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취업시장에 인력을 배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대학의 기준이 되었다.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관리를 돕는다.

제주지역의 대학도 비슷한 양상을 취한다. <그림 2>는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취업전략본부의 홈페이지이다. 대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웹 사이트이다. 이곳은 학생들에게 면접기술을 알려주고, 취업을 위한 전략을 짠다. 바우만은 대학사회가 전통적 교육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전하길 원했고 또 전수하기 용이했던 앎을 터득해나가는 지식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지식이나 처세술 같은 지식들을 터득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auman, 2009: 211).

대학은 <그림 3>과 같이 성공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취업과 관련한 정보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직접 들려주기도 한다. 강연의 요지는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만함과 태만함은 비난받으며 이것은 곧 노력하지 않거나 남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없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취업’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대학을 등에 업은 성공스토리들은 개인에게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를 불러

일으킨다. 실패하는 개인에 대한 처방은 간결해진다.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에 대한 계발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림 2> 제주도내 국립대학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취업자료실

- 취업 가이드
- > 교내 취업자료실
- > 서식다운로드
- > 상시진로자료실
- 교내 취업자료실
- > 취업뉴스
- > 동영상 취업강좌
- 교외 취업자료실
- > 서류전형(이력서)
- > 서류전형(자기소개서)
- > 면접전형(면접대학)
- > 면접전형(기업별 분석)
- > 인적성검사대백
- > 취업성공전략
- > 취업성공수기
- > 인사매니저 컬럼
- > 직업의 세계
- > 자격증
- > 경력개발/전직가이드

Beautiful Challenge

번호	제목
133	면접관을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132	상반기 취업 대비 영어 면접 준비요령
131	면접 첫인상 평가 2분이면 끝!
130	리크루트 단선
129	영어말하기 시험이 대체. 이젠 토익점수에 안 속아
128	면접이 진화하고 있다
127	면접의 훈련과 채용면접의 향후 발달
126	면접 기법에 의한 핵심인재의 선발
125	면접 기법을 능력개발에 활용하라
124	역할연기 면접의 설계와 준비
123	프레젠테이션(발표) 면접의 설계와 준비
122	한국방송광고공사(행정직)
121	인천국제공항공사
120	토론 면접의 설계와 운영
119	피면접자의 준비와 자세
118	면접순서별 체크 포인트
117	영어면접의 모든 것
116	[모의면접 현장체험] 면접왕 선발대회
115	이색면접(파티면접)
114	이색면접(게임면접)

[1][2][3][4][5][6][7]

자료 : 00대학교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2014

<그림 3> 제주지역 국립대학 학보사에 게재된 취업관련 기사

[대학뉴스] <취업을 Job 아라> ㉔ 제주이전기업알방 (주)제주반도체 JSC> 제주에서 최고 반도체기업을 꿈꾼다 [세상]	기자	2013-05-27
[대학뉴스] <취업을 job아라> ㉓ 해외 매출액 8천억... 인력 80% 제주출신 채용 [세상]	신문	2013-05-08
[대학뉴스] <취업을 Job 아라> ㉒ 꼬마해녀 '올나' 개발... 제주를 대표하는 IT·CT회사로 성장 [세상]	기자	2013-04-03
[대학뉴스] <취업을 JOB 아라> ㉑ 제주이전 후 연매출 30배 성장... 사원복지에도 최선 [세상]	기자	2013-03-20
[대학뉴스] <취업을 JOB 아라> ㉐ 취업 성공 사례 [세상]	신문	2013-03-06
[대학뉴스] <취업을 JOB아라> ㉙ 문화콘텐츠·무엇전문가 인력양성 과정 등 운영 [세상]	기자	2012-11-28
[대학뉴스] <취업을 JOB아라> ㉘ '취업준비 저학년일수록 좋다'... 취업연계 특화과정 확대 시급 [세상]	기자	2012-11-14
[대학뉴스] <취업을 JOB아라> ㉗ 업무 적응력 뛰어난 인재 선호... 취업전략본부 활용해 철저한 준비를 [세상]	신문	2012-10-31
[대학뉴스] <취업을 JOB아라> ㉖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왜 중요한가? [세상]	기자	2012-09-26
[대학뉴스] <취업을 JOB아라> ㉕ 대학 취업률 평가의 그늘 [세상]	기자	2012-09-12

자료 : 00대학교 신문사 홈페이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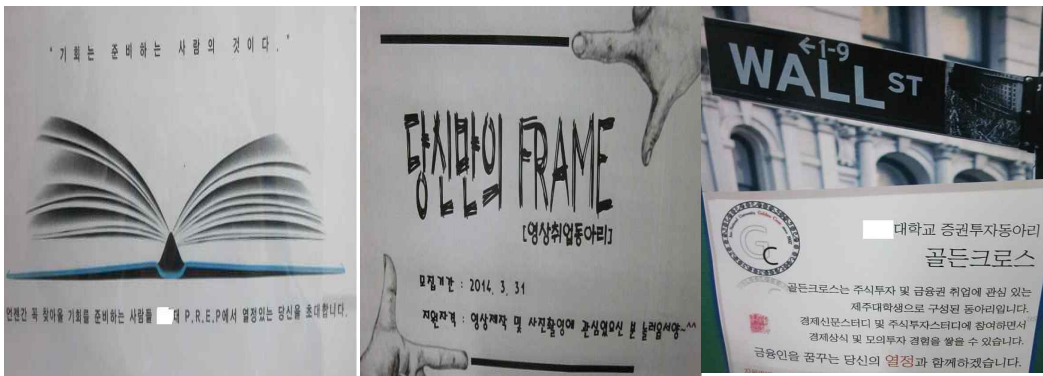
대학 행정당국 뿐 아니라, 대학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주제에 집중한다. <그림 4>와 같이 총학생회도 취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생들에게 마땅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한다. 사업은 일시적이고 단절적이다. <그림 5>처럼 학생 개인들도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동아리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킨다. 취업동아리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자기계발서의 이름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다.

<그림 4> 총학생회 야외 현수막



자료: 00대학교, 2014 (방문일: 2014.03.17)

<그림 5> 취업 동아리 팸플렛



자료: 00대학교, 2014 (방문일: 2014.03.17)

<그림 6>과 같이 학과마다 내거는 취업성공 현수막은 학생을 잘 관리하여 노동시장에 배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이다. 이는 동시에 자신의 학과가 효율적이고 능력 있다는 과시이기도 하다. 대학사회에서 취업률은 서열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의 정책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직업을 찾기 위한 기술연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본질을 잃

고, 부수적인 것에 잠식되고 있다.

<그림 6> 학내 취업 현황 현수막



자료: 00대학교, 2014 (방문일: 2014.03.17)

바우만은 개인들의 힘이 집단적 입장과 행동으로 결집될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그 고충들은 전부 더하여 공동의 대의명분의 함으로 모아지지 못한다. 서로 나란히 놓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로 응결되는 법은 없다. 개인의 고충들은 그 발생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고충과 연계될 수 있는 접점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Bauman, 2009: 59). 대학사회에서 대학, 총학생회, 학생은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우리’라기보다는 ‘각자’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공적인 영역은 사라지고 개인들이 처한 위기는 커져간다. 대학행정은 기업과 같이 대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생은 어떤 식으로 위기를 모색할지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각자는 개별화되고 분파적으로 움직이며, 전략은 일시적이다.

Ⅲ. 학교·가정·노동사회에서의 훈육과 경쟁규범의 내면화

3장에서는 가정·학교·노동사회에서 개인에게 작동되는 통제술을 보려한다. 개인들은 학교와 가정, 노동사회라는 통제메커니즘을 거치게 된다. 통제는 훈육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규범을 확립한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기준을 확립한 개인들은 타자에 의한 훈육이 아닌, 규범을 확립한 자신을 통해 통제받는다. 이러한 통제는 모든 개인들의 삶에서 거치게 되는 학교, 가정, 노동사회와 같은 일상 공간의 타자들을 통해서 누적된다. 학교에서의 서열화를 경험하는 개인, 노동자로서 부모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낀 개인 그리고 노동사회에서 삶의 불안을 직접 경험하는 개인은 하나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개인들의 모습이다. 일상의 권력을 통해서 개인은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에 대해 보다 복종하고 순응하기 쉬운 개인으로 만들어진다.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개인들이 학교와 가정의 공간에서 훈육과 경쟁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서열화된 공간

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하고 모순적이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교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은 짜여있는 시간표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잘라 맞춰야 한다. 경쟁, 협동, 학구열, 우정,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배우기도 한다. 역으로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성적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억압받고, 학우와의 폭력과 갈등, 성적·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는 교사를 경험하기도 한다.

필자는 복합적인 학교의 모습을 청년들의 학창시절의 경험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했다. 청년들은 학교를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며, 문제에 대한 묵인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기억했다. 문제의 사각지대를 경험했던 학생들의 서사를 통해 학교

공간을 (단면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했다.

1) 신체에 대한 통제

『감시와 처벌』을 통해 푸코는 신체형을 통한 처벌이 점차 윤리적 장치를 만들면서 규범이 내면화된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Foucault, 1994). 즉, 형벌 등과 같은 장치를 통한 신체의 억압이 윤리적 억압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통제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다. 학생들은 학교가 정한 규칙에 자신의 생체리듬을 맞춰야 했다. 개인적인 몸의 리듬이 학교의 시스템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고3 때부터 급격히 체력이 안 좋아졌어요. 시험 볼 때 가위눌리기도 했어요. 그게 고2 말부터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생리기간 1주일동안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오르다가 더 이상 안 올랐어요. 성적이 더 안 나와서 수시를 넣었고 1차 합격해서 수시를 보러갔는데,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연필로 시험을 봤어요. (중략) 운이 참 좋은 아이들이 있는 반면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 마음자체가 약했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을 보고, 시험보기전날 가위에 눌리곤 했어요. (F1수진)

현주(F3)도 중학교 때 자신의 신체 리듬을 시험제도에 잘 맞추지 못했다. 학업을 인정받고 싶다는 압박은 더 큰 불안을 만들기도 했다. 중·고등학교 때의 잘못된 습관들은 추후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반복됐다. 스스로의 훈련을 위해서 많은 시험문제를 풀어야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고민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에게 남는 것은 훈련의 중요성과 자기비난이었다.

공부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항상 잘 안됐던 것 같아. 취업이든 공부든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더 잘해야 되는데, 3학년 때는 대입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의 것이 아니라 매번 앞서 걱정했어. 그전에 공부를 할 때 알게 된 건데 막상 시험을 보면 내 생각은 더 잘 본 건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 봐보면 문제를 똑바로 못 읽는 게 많았어. 그게 사회생활에서 업무 평가나 시험 같은 것 볼 때도 그런 게 남아있었어. 중고등학교 때도 문제를 반대로 읽고 그랬어. 그렇게 된 걸 회사생활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 (F3현주)

2014년에 실시된 어린이 문화 생활실태조사¹³⁾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원과 성적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학생들이 가장 주요한 측면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타자화된 실천이 강요된다는 점이다.

참교육연구소의 초등학교 어린이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학원과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면 학원 다니기 52.1% > 성적 48.4% > 건강 19.8% > 외모 15.8% > 친구와의 관계 12.3%의 순으로 역시 학원과 성적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방과 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학원 > 공부하기(숙제포함) > 스마트폰 사용 > TV시청 > 친구와 놀거나 운동 > 가족과의 대화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은 친구와 놀거나 운동 > 스마트폰 사용 > 취미생활 > TV시청 > 컴퓨터게임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42.8%)을 즐겁게 생각하는 경우는 3.5%만 해당됐다. 학원에 다니는 것이 어린이들의 자발적 요구라기보다는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교육연구소, 2014.4.30).

고등학교생활을 하면서 윤정(F5)은 학업에 대한 스스로의 위치와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성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신은 그만큼 역량이 뛰어나지도 않으며 어느 정도의 향상으로는 ‘1학년 때부터 잘하는 아이들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였다. 학교는 스스로를 점수화하며 서열화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반복된 일상을 통해 내재화된 서열화이기도 했다. 심층면접자들은 푸코가 논의한 규율권력을 통한 순종적인 주체와 신자유주의에서 요구하는 경쟁적인 주체가 복합되어있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나는 어차피 00대학교 갈 거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았던 것 같아. 1학년 때부터 잘하던 아

13) 5월 가정의 달과 제 9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문화와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1,99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참교육연구소, 2014. 04. 30).

이들은 욕지로 갈 것 같은데 (중략) 어차피 이정도면 00대 갈 거라고 알았지. 어차피 00대 갈 거니까. 사교육은 하나도 안했고, 수업 끝나고 야자하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가고 치열하게 하지 않았지만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근데 다른 준비는 못하지. (F5윤정)

고등학교를 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력이 약하고 잘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그때부터 그런게 있었거든요. 똑같은 길을 걷기 싫다. 사람들이랑. 이왕 거기도 경쟁이 심하지만, 제주도바닥에서 하는 사람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문학 쪽에 관심을 갖고. (중략) 문학특기생을 준비했죠. (M3민수)

고등학교에 진학한 민수(M3)는 공부를 해도 중학교 때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교라는 경쟁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 몰두했다. 학교는 성적을 기준으로 진로의 ‘목표’를 가지도록 만들며, 대학 진학이 힘들거나 뒤쳐진 학생에 대해서도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게 했으며, 실천하게 했다. 학교라는 공간에 소속되어있는 이상, 대상자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마저도 통제 받았다.

2) 공동체의 파괴: 학교폭력

학교라는 공간은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학업이라는 지식의 전달 장소이기도 하지만, 친구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며 선생님이라는 제2의 보호자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교 공간 안에서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이 존재하기도 했다.

학교는 학급의 공간배분을 통해 교사의 시선에서 학생들의 행동이 벗어나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Foucault, 1994). 그러나 현대의 학교는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갈등을 통제하지 못하며, 관리자로서의 교사는 학생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무능력하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2012년도 제1차 조사에는 제주지역의 초등학교 108개, 중학교 43개, 고등학교 30개 등 총 181개의 학교가 참여했다.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응답한 16,158명 중 피해자수는 1,950명

(12%)이며, 일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3,278명(20%)에 달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총 194개 제주지역의 학교가 참여했으며, 61,521명의 학생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실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적인 심부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다른 지역의 경우 6개월에 1~2번 정도가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제주는 ‘1주일의 1~2번 정도’(12.2%)로 빈도가 더욱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폭력의 주기가 보다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평균 ‘1개월’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제주에서는 ‘6개월 이상’(6.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은 제주에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36.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폭력을 당하는 피해 빈도가 높으며, 타 지역에 비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당사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가장 많았다.

10명의 면접대상자 중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던 경우는 2명(F1수진, M3민수)이다. 수진(F1)의 경우는 이전에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를 돕다가 자신이 경험하게 됐다. 수진(F1)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년까지 따돌림을 경험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나서야 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반에 따돌림을 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개가 외모상으로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개가 놀림을 받다가 폭발을 해서 애들이 살짝 굶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하니깐. 제가 “너네가 놀리지 않았냐 너네들이 잘못이다” 한마디 했다가 모든 책임화살이 저에게 왔어요. 그 괴롭혔던 아이한테는 갑자기 잘해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게끔. 그때부터 왕따가 시작됐는데 어느 날 좋았다 나빴다 했어요. 어떤 때는 잘해줬다가 어떤 때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랬어요. 더 영악하게 괴롭혔던 것은 학생회장 선거가 되면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하고 올려놓고 그게 끝나면 집에 간 사이 자기 무리 중 한 아이를 추천을 하는 거죠. (중략) 우리는 똑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간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떨려요. 저를 따돌렸던 그 아이는 지금 선생님이 됐어요. (F1수진)

민수(M3)는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임시반장이 된 친구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경험한다. 임시반장은 대표의 직책을 갖고서 1년 동안 학생들을 괴롭혔다. 동급생이었던 학우는 친구의 질병에 대해 놀리고 괴롭힘을 주동했다. 주동자가 전학을 가고 나서야, 민수(M3)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학교때는 뽕뽕이를 돌리잖아요. 그중에 [전교생 중] 4명만 같은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저만 거기 [반까지 다른 친구들이랑] 떨어지게 되는데 이름순으로 앉는데 1학년 때 2번이 된 거예요. 1번인 친구가 임시반장이 됐고, 그 임시반장이 반장의 권위를 이용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자리였고, 괴롭힘의 대상이 됐어요. 막 시키고 명령하고 하다가 괴롭힘으로 갔어요. 제가 스트레스도 많고 집안일도 많고 하니까, 머리랑 온몸에 건선이었어요. 그런 것 괴롭히고, 귀에 각질도 있고 피부병[때문에] 그러면서 비듬맨 이렇게 되고, 샤프로 귀를 파요. 저를 불러다가 귀를 찌시는 거죠. 거의 트라우마였죠. 이것저것 괴롭히기도 했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개가 2학년이 되면서 아빠 사업상 필리핀으로 전학을 가요. 전학을 갈 때까지 뽕을 뜯었어요. 전학가고 나니까 자유의 몸이 됐죠. (M3민수)

학교의 공간은 성적으로 서열화된 공간이자, 폭력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학교폭력은 학급 학우들의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파괴된 공동체는 개인들을 더욱 과편화시키며 학교는 친밀성이 강화되는 공간이 아닌, 적자생존의 공간으로 변모된다.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경기와 광주 지역의 경우, 2013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줄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피상적인 교육과 캠페인, 처벌위주의 대처 보다 학교 자체를 상호존중의 문화로 전환할 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3. 4).

3) 서열화의 관리자

학급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규범과 규칙을 훈육하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으로 파괴된 학우 공동체를 수습하는데 무능력하다. 교사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이 아닌, 서열화를 관리하는 행정 처리자로 전략하게 된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의 서사를 보면, 따돌림을 당했던 민수(M3)는 1학년 때 선생님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당시 윤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에 대해 도덕적이지

도 않았으며,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같았다고 평가한다. 자신의 따돌림에 대해서 간과하던 선생님이 성적이 오르는 학생에 대해서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느끼게 된다. 그것에 대해 민수(M3)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1학년 때 왕따를 했던 아이도 싫었지만 그런 아이를 지지해주고 했던 선생님이 싫었어요. [제가 괴롭힘 받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목도 도덕인데 [다른] 학생이 100등 이상 올랐다고 하니 엄청 칭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M3민수)

학창시절 따돌림을 경험해왔던 수진(F1)의 경우도 힘이 들어 하소연하지만, ‘부딪혀서 이겨보라’는 선생님의 제안을 받는다. 따돌림을 해결해주려던 선생님마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F1)은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주동자가 없는 중학교에 진학하고서야 따돌림에서 해방된다.

6학년 2학기에 [학생회장으로] 제 이름이 올라갈 걸 알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는 5학년 1학기 때부터 [이름만 올리게 하고 다음 날이면 다른 아이를 뽑도록] 그렇게 했다. 후보에서 내려달랬더니 선생님은 “네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해서 네가 되면 할 일이 있지 않냐”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부모는 다 알아주는 부모님이었어요. 그 때 당시 선생님들도 우리 받은 말기 싫어했어요. (F1수진)

현주(F3)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옷을 입는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것이 자신이 가난하고 집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이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노력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 학교공간의 선생님은 학생들의 삶을 인도하기보다는 공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경제적 위치와 성적이 뒤쳐져서 차별을 받게 되면, 학업을 통해 보상받거나 경제적 위치를 향상시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느끼기도 했다. 현주(F3)의 경우는 학창시절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경제적인 수준도 좋지 않았다.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외모

를 가꾸게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경제적 조건이 좋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이 타자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부잣집아이처럼 생긴 애가 있었어. 얼굴이 하얗고 키도 크고 운동화도 좋은 운동화, 가방도 그렇고, 그 애는 공부도 잘해서 의대도 갔어. 그런 아이 있잖아. 뭐하나 모자란 게 없는 것 같은 아이. 선생님들한테도 유명했던 것 같아. 그런 아이한테는 유독 별 말을 안하는데... 근데 하찮은 애들있잖아.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 살지 못하거나 그런 특출하지 않은 아이한테는 막 대하고. 막말을 잘하는 거친 수학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식당에 왔었어. 나한테 '너 00식당 딸래미 아니냐? 공부 똑바로 해 이 새끼야'하고 그랬어. (생략)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 딸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부모님이 잘 살지도 공부를 잘하지도 않gi] 때문에 그런 것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 안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생략) 그 선생님만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나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순간 나는 형편없는 아이가 된 느낌? (F3현주)

교사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의 경제적 위치를 다시금 보게 된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학생은 스스로 방법을 찾지 못하면 권력을 가진 타자에게 다시금 짓밟힐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윤정(F5)은 학창시절에 중간정도의 성적을 갖고서 인문계를 진학했다. 값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교사는 어디서 AS가 되는지를 묻기도 하고, 잘사는 집의 아이한테 막말을 했다가 학생의 부모에게 혼나는 선생님을 보면서 교사도 직업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도 할당된 시간에 수업을 가르치고, 더 높은 권력자에게 웅크리고 맞춰야 하는 노동자일 뿐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사는 아이네 부모님이 가방사주면 [선생님이] 이거 as어디서 했냐고 물어보고, 어떤 아이한테 막말했다가, 그 아이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었나봐. 잘사는 집 아이네 부모가 연락왔더니 학생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반에도 별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 그런 거 없었.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받아서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냥 물어갔던 것 같아. 나한테 친절하지도 나쁘게 하지도 않았어. 서로 무관심. (F5윤정)

학교는 관료제 조직으로서 업무를 나누고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사는 학교의 노동자로서 짜여진 시간표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무적인 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수업은 꼭 짜인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매번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서열화한다. 하지만 교육의 질이나 인생교육 역시 교사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면접자들의 경험 속에서 교사는 경쟁사회의 규범을 학교에서부터 수용하도록 하는 ‘서열화의 관리자’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한다. 동시에 교사는 스스로 직업인으로 순응하게 된다(엄기호, 2013).

2. 가정: 반면교사의 공간

가정은 노동자로서의 부모를 인지하는 공간이면서, 예비노동자가 될 자녀를 훈육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정에서의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을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학교와의 연계에서 부모의 지시와 감독을 듣기도 한다. 노동에 찌들었지만 경제적 조건은 나아지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의 (미래의) 위치를 예감한다.

1) 경제적 위치를 인지하는 공간

수진(F1)은 매번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부모에 대해 보답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부모님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의 형제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월등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부모님의 욕구를 채워드리려고 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큰 아버지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받았고, 아빠까지만 학교를 못 갔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잘 가고, 그래서 집안도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고, 저희 어머니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외삼촌까지는 잘 사시고, 엄마는 중학교도 못 나오시고,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어떤 큰 욕심을 가졌다기보다는 ‘보통만 살면된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중략) 저 같은 경우 저 때문에 부모님이 부끄러운 일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F1수진)

창운(M2)은 동사무소에서 교복을 지원받으며 부모의 가난이 곧 자신의 가난임

을 인지하게 된다.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있었어.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그 지원이 그냥 주면 되는 건데, 동사무소로 가서 그걸 받으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할게 있다고. 동장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가난해서 온 것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사자한테는 자존감에 상처로 다가왔거든. 나한테도 자존감이 되게 상했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상처받았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했어. (M2장운)

면접 대상자들은 부모의 삶과 그들의 경제적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가족과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인지한다. 그 속에서 자신이 그런 위치를 만회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자각과 의지는 노동사회 진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자로서의 삶이 전이되는 공간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면서, 스스로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삶’을 자녀들에게 학습시킨다.

엄마 아빠는 “늘 너희는 공부해야해. 너희는 몸으로 고생하는 일 말고, 머리로 고생하는 일 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엄마아빠가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아빠가 행복하겠는데, 강압적이지 않고 그럴 때 나 혼자할 때는 풀어지고 그랬어. (F3현주)

노동자로서의 부모는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을 자녀들에게 요구한다. 2014년 어린이 생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님의 권유로 학원이나 학습지를 하게 된 어린이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 하게 된 어린이는 29%에 불과했다. 또한 평일 아침식사를 부모님 없이 형제나 남매 혹은 혼자 식사하거나 거르는 어린이가 10명 중 5명으로 나타났다(참교육연구소, 2014. 4. 30).

아버지가 소아마비였거든. 어릴 때, 3살 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절뚝거리는 게 있어. 내

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셨어. 그래서 내 학업에 신경을 쓰거나 그러기 힘들었지. (M2창운)

중학교 때부터 아침만 같이 먹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식사를 같이 못했어. 부모님은 일해야 되고, 우리는 학교가야 되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 진로에 대한 고민은 가족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가족들과는 좀 힘든 것 같아. (F3현주)

노동자로서의 부모는 자신이 직면한 위기와 처리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자녀와의 시간을 줄여야 했으며,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지 않도록 자녀에게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성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노동에 포섭된 부모세대를 경험한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의 삶을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실천을 모색한다.

3) 진로의 선택 : “너의 삶은 내가 만들었어”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진로선택의 상황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진로를 준비한다. 진로에 대한 선택권이 좁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명예를 갖고 있는 주변 친척의 권유를 통해 진로를 모색하고자 했다. 부모 또는 친척이 권유하는 진로는 수요가 언제나 존재하는 전문직이나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군이었다. 미래의 비전을 보고서 중국과 관련된 분야를 권유하기도 했다. 또한 진로를 선택할 때 ‘타인의 시선’도 중요했다. 현주(F3)의 부모는 자녀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실패하여 실업계에 입학하게 된 자녀를 불명예로 생각했다.

중3때 성적이 많이 올랐어. 나는 성적이 안 되면 00고등학교 같은데 가서 잘할 자신이 있었어. 좋은 데 안가도 나는 은행같은 곳 들어갈 수 있겠다[생각하고] 그랬는데, 다만 무서운 건 아이들 담배피고 그럴까봐 그랬거든. 근데 엄마아빠는 자존심이 상했나봐. “언니도 실업계 갔는데 너도 그러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막 그랬어. 왜 남들만큼 너는 못하냐고 그랬어. 나는 사실 나를 놔뒀으면 좋다고 생각했거든.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안 되는 나를 막 바꾸려고 했으니, 우리 모두 힘들었던 것 같아.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엄마 아빠가 만났었는데, 그때는 실업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인문계 떨어지면 00고등학교를 가야했어. 그래서 한 두 문제 차이로 00고를 가야되는데 갈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야. 엄마아빠

가 “네가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랬어. 근데 나는 불안감이 커서 너무 무서웠거든. (F3현주)

대상자들이 부모에게 권유받았던 진로는 몇 가지로 좁혀졌다. 여자의 경우, 간호사, 유치원 선생님, 공무원과 같은 전문직이었고, 남자의 경우도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랐다.

은주(F2)의 부모는 자녀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진로는 대학 학과의 진학 여부를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편차가 좀 있거든. 아빠 자체가 [공무원이지만 보수가 좋지않은] 공무원이고 엄마는 다른 일하는데 병원 주방에서 일하는 데, 공무원 아니면 간호사 준비를 하라고 했었고,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중략) 막연하게 여기를 가라고 지시적으로 말했고, 나는 그런 말을 툴렸고, 안 들었어. 그나마 절충해서 사회학과 간거야. 그것만 [말을] 들었지. 사회학과에 들어가게 된 게 그 학문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접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게 된 영향이 있거든. 거기가면 복지를 연계진공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서 간 것도 있어. 내가 첫째니까 안정적인 일을 가져야 한다. 무조건 부모님은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라고 했거든.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복지사를 오래하거나. 나는 그걸 안하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많았었고. 빛 없는 집 없듯이. 안정적으로 뭔가. 우리 집은 돈이 좀 급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화나 여유도 안됐지. (F2은주)

자녀와 부모의 진로에 대한 갈등에 있어서 부모는 안정적이거나 수요가 있는 전문직을 요구했지만, 자녀의 경우는 스스로의 적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고민은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는 순간에 표출됐다.

수진(F1)은 농대에 가고 싶었지만 중문학과를 고집하는 부모와 갈등하기도 했다.

농대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거기는 진짜 못가는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데라고. 어렸을 때 일기를 봐보면 ‘아버지는 나를 명찰처럼 가지고 다니려고 하신다’라고 썼더라구요. 아버지 친척들 자식보다도 제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잘할 줄 아셨나봐요. 운이 참 좋은 아이들이 있는 반면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 마음자체가 약했어요. (F1수진)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아닌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진학한 경우도 있었다. 수연(F4)과 수진(F1)은 노동사회에 들어가서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대학교는 부모님이 유치원교사랑 간호사 중에 선택하라고 헐. 근데 나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신 디. 부모님이 안 된덴, 외가댁에 잘사는 분한테 말했더니 교육학이나 사범대 갈 것 아니면 전문대 가는 게 낫다고 하는 거. 간호과랑 유아교육과 가라고 해신디. 간호과는 너무 싫은 거 피 보는 것도 싫고, 3교대도 안 좋고 해서 유아교육과 갔지. 교수님한테도 말했지. 저 진짜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빠는 빨리 나와서 취업이나 하라고 했고. (F4수연)

그때 작은 아빠가 “중국어 열린다. 중문과를 가라”고 했는데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완전 제 분야가 아니었는데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안 중 제일 잘된 사람이어서 거기로 갔는데, 완전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1년을 완전 놀아버려서 자연계열 쪽으로 전과도 안 되고, 1년 동안 떠돌이처럼 지냈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00어를 가르쳐주는 게 있는 거예요. k대 때문에 그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런 것을 강의한다면 k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했어요. 대학졸업을 29살에 했어요. (F1수진)

윤정(F5)은 부모가 요구하던 유치원 교사가 아닌, 공무원을 준비하기를 원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윤정(F5)의 부모는 공무원과 연계되면서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학과를 추천하여 진학하도록 했다.

엄마가 취업 잘되는 유아교육과로 가던가. 세 명 다 유아교육과를 가면 어린이집 하면 되니까. 아니면 간호학과 가던가 했고, 근데 나는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고, 피도 안 좋아해서 가고 싶지 않았어. (F5윤정)

현주(F3)의 경우는 승무원이 되고자 항공운항과를 지원했지만 정시에서 떨어졌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의 개입으로 정원 외로 지원하던 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내가 떨어진 걸 엄마도 알게 됐어. 엄마가 학교에 전화를 했나봐. 그때도 [고등학교 진학 때 나서셨듯이] 엄마가 나서셨지. 어떡어떡해서 나를 끼워줬어. 엄마는 생각하는 것 같아. “너의 인생은 내가 만들었다”고. 정원 외라도 입학시켜달라고 사정사정했나봐 그리고 입학이 되더라고. 엄마는 그때 학과사무실로 계속 전화해서 사정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나중에야 알았어. (F3현주)

부모들은 대다수 취업하기 좋은 학과를 자녀에게 권유했다.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고, 사회적 빈곤층으로 탈락하지 않기 위한 일자리를 권유한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자녀의 '적성'보다는 일정정도의 수요가 늘 존재하는 노동이 보장되는 일자리였다. 자녀의 도전이 필요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는 명성이 있는 일자리에 한정되었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자녀가 보여지는 위치를 생각하기도 했다. 이는 부모가 타자의 시선을 통해 그들의 실천을 단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삶에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을 자녀의 성공을 통해 정신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사회

1) 홀로 싸워야 할 위험으로 가득한 세계

바우만에 따르면, 일은 무형의 것들에 형태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놀랍고도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 혼돈의 질서 속에서 유연성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사회에서 일은 더 이상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사명이나 평생의 천직을 의미하지 않는다(Bauman, 2009: 225).

노동사회는 다양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 일을 공급하는 자들은 더 많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일자리를 기간으로 잘라 쓸 수 있게 된다. 평생직장은 줄어들고, 평생직장에 고용되기를 기대하는 노동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유연성을 제고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각 개인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나뉘어져 노동에 종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자가 경험하고 고충을 모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개인의 고충들은 유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 부분들의 합 이상의 어떤 하나의 총체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삶이 오직 홀로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위험들로 가득하다(Bauman, 2009: 58).

면접대상자들은 공무원, 승무원, 시민단체, 연구자 등 다양한 직업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 직종이 같은 경우도 존재했지만 개인들의 위치와 입장은 각자 달랐다.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진입한 이후에도 그들은 개인별로 떨어져서 존재했다. 언제든 속한 곳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상태를 갖췄다. 이는 노동사회가 그들에게 결속을 강화시키고 평생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불안정한 공간이며 결속하기 어려워진 공간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개인들은 유목민처럼 언제든 위기에 대비하여 그러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훈련된다.

파편화된 공간속에서 개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한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이라면 약간의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래의 친구나 직장동료들의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점을 살핀다. 따라서 개인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지기 위한 자기계발을 진행하거나 뒤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윤기(M1)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또래들과 삶에 대한 불안을 공유한다. 학내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경제구조의 위기상황을 연대해서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졸업 이후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커져갔다. 불안감은 또래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그들은 각자 도서관 책상에 앉아서 각자의 과업을 해나갔다. 위기 속에서 연대는 존재하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각자 자리에 앉아서 자신만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건이 뜨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곤두박질하면서 장난 아니었어. 경제에 대해서 민감한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명박이 된 거잖아. 아~ 아 정말 그때 애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2003년에만 해도 매번 낚술했던 것 같은데, 2008년 되면서는 “우리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다 도서관 갔어. 사람들이 완전 없어. 과방에 위기감이 확 온 거라. 2008년에 몇 개 대기업은 사람을 아예 안 뽑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나 같은 경우는 농협 준비했는데 거기도 그때 비리 터져서 사람 안 뽑고 그렇게 되니까 갈 데가 공무원밖에 없고 농업직을 준비했어. 치참한 인생이 2년간 그때가 26살? [아마도] 27살 때 그때 [시험 준비할 때] 하루에 4시간 잤어. (M1윤기)

삶에서의 위기감은 위기를 감수한 실천을 ‘비정상’으로 보며, 위기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취하려는 실천을 ‘정상’으로 본다. 이러한 기준은 내재화되어 있기에 자신의 행위와 타자의 행위를 비교하여 스스로를 타자와 구분하려 한다. 민

수(M3)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영업을 운영한다. 그는 자신을 ‘스펙병신’이라고 비유한다. 그는 학점관리, 토익점수, 자격증과 같은 스펙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분류하고, 스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정상으로 생각했다.

저를 비정상에 두고, 개네들을 정상으로 두고.... 그러니깐 저 스스로에서 저를 비정상에 뒀요.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좀 이상하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상해도 못 그만두겠어요. ‘내가 좀 특이하긴 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관심이 있지만 적당한 선을 그으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라고 봐요. (중략)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지. 그냥 떠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대신 지나고 지방선거 지나고... 계속 떠들어야지. (M3민수)

그는 또래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여겼다. 대다수의 청년들과 다르게 행동하지만 이를 멈출 수는 없었다.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동시에, 또래 친구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자기계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스펙 쌓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쌓고 싶어서가 아니다” 카페에 와서 하고 가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영어공부 특히 그런 거예요. “나는 아직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야 되고, 스펙을 쌓으면서 무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M3민수)

민수(M3)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제기하고 ‘떠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언제까지나 유지되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비슷한 살아야 함을 예상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신의 삶을 끊어서 보게 한다.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사명감을 갖는 일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2) 열정과 안정 사이에서

현주(F3)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 여러 차례 항공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 그녀는 ‘면접관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평한다. 승무원이 되고 싶었

지만 내면까지 다듬지 못했고 면접관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면접관의 눈이 주관적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면접을 보는 자신은 면접관의 생각까지 읽고서 그들의 눈에 맞춰야 한다. 단정한 외모에 서비스가 우수한 승무원이 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아름답게 외모를 가꾸어야 하며, 내면까지도 곱게 보여야 한다.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밝게 웃고 싶어서 그 일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승무원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면접관들 눈에는 그런 게 보였겠구나. 많은 합격자들이 그런 말을 해. “내려와서 합격했다”고. 왜냐면 승무원이 되는 것은 정말 주관적인 것에 합격 되. 지원자 2,000명 중에 100명이 뽑히거든. (중략) 승무원은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런 것도 면접에서 다 보거든. (F3현주)

기업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만약 당신이 자본가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에게 고용되지 못할 것이다”고 말한다. 구직자들은 제각기 특별한 존재임을 주장해야 한다. 평범한 노동자로 살기 위해 비범한 존재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자본주의가 새롭게 발견한 열정의 쓸모이다. 감시자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면접관에 빙의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다. 즉 면접관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한운형·최태섭·김정근, 2011).

남일(M5)은 대학을 졸업하여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떨어졌다. 방황하던 차에 사촌형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를 권유한다. 대다수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반해,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이기에 남일(M5)은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30살이었던 사촌형이 있는데 “공무원시험을 봐라”고 “자기는 빠 빠지게 일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공무원시험은 한번만 하면 된다. 한 번의 문턱을 넘으면 된다. 23살 공부한 것이 다른 일을 하면 허투루 간다”고 말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 내가 살아온 생활을 아우를 수 있겠다 싶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M5남일)

남일(M5)은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만 연거푸 낙방하게 된다. 부모님이 종사하는 어업을 물려받을 것도 고민해봤지만,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하기를 바라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부모님께 “고기 잡고 어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극구 반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너는 골골해서 안 된다. 멀미도 심하지 않냐? 다룰 게 엄청 많고 힘들다. 공부를 해라. 공부는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된다” (M5남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미래의 보증수표를 위해 ‘현재의 자신의 삶을 유예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앞뒤에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을 이겨야만 승리의 축배를 마실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대는 자신과 주변인들을 타협하게 했지만, 보상을 즉시 받을 수 없다. 보상에 대한 대가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개인들은 경제적 불안과 경쟁적 규율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것과의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부모가 권유하는 직장과 스스로가 원하는 직장간의 간극은 노동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가 원하는 직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경쟁에서 승리해야한다. 개인들은 스스로의 선택과 함께 사회에서의 탈락과 이탈을 주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삶에서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과 선택은 계속해서 불안을 만들어낸다. 다음 장을 통해 개인들의 삶을 몇 가지의 지표로 유형화하여, 심층대상자들의 불안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상황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IV. 유동하는 삶의 유형과 실천

4장에서 필자는 심층면접대상자들의 서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유형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청년들의 삶의 유형은 고정성과 유동성이라는 노동의 결속도와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이라는 개인 의지의 표출도에 따라 결정된다. 청년들은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타자와 경쟁하도록 내몰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늘 변화를 겪게 된다. 필자는 이 장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부추김 당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유동성을 가시화할 것이다.

1. 삶의 유형 분류 기준

1) 노동의 결속 정도에 따른 삶의 양상: 고정성과 유동성

현대사회에 오면서 노동은 불안정적인 것이 된다. 바우만은 초기근대와 액체근대를 노동에 대한 결속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바우만은 초기근대에서 ‘일’은 일시적인 것들에 지속성을 주는 것이라 정의한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혼돈을 질서로, 우연을 예측 가능한 사건들로 교체함으로써 삶의 고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을 하면 부가 늘어나고 불행이 사라진다고 여겼다. 반면 액체근대에서 일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사명을 지니도록 원대하게 계획된 것도, 평생의 천직이라는 웅장한 의도를 지닌 것도 아니게 된다(Bauman, 2009: 222-225).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동력에 대한 생산자와 노동자의 결속¹⁴⁾이 무너지게

14) 고체근대는 무거운 자본주의 시대, 상호 의존성으로 강화된 자본/노동이 결합된 시대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생계 때문에 고용된 상태에 의존하고, 자본은 재생산과 성장 때문에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의존했다. 그들이 결합하는 장소는 하나의 고정된 주소였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었다. 자본과 노동자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든 나쁘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간에,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결속되어 있었다. 공장이 그들의 공동 서식지인 동시에 참호전을 벌이는 전투장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자연의 집이기도 했다(Bauman, 2009: 234).

된다. 이제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개인들의 삶의 중심축이자 삶의 토대로 기능했던 노동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노동이 삶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됨에 따라 개인들의 내면에 불안이 자리하게 된다.¹⁵⁾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개인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삶의 양상은 노동의 결속 형태에 따라 노동의 결속이 강한 ‘고정성’과 노동의 결속 정도가 약한 ‘유동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결속정도는 삶이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고정성은 개인에게 경제성 및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됨을 뜻한다. 하지만 개인들은 고정성을 얻기 위해 타자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유동성은 경제성 및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삶, 즉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고정성을 얻기 위한 경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유동성을 경험한다.

개인들은 유동성과 고정성 속에서 불안을 동시에 경험한다. 유동성에 속한 개인은 지인이나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고정적 삶에 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고정성을 지향하게 된다. 고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에 비해 유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경제적인 여건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러나 고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도 자신의 고정적 삶을 유동적으로 뒤바꿀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삶이 유동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직감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개인들은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업무에 필요할지 모르는 자격증, 어학 공부에 매진한다.

15) 이러한 불안에 대해 프랑스 이론가들은 불안정성을 말하고, 독일 이론가들은 불확정성과 위험사회를, 이탈리아 이론가들은 불안, 영국 이론가들은 불안정성을 말한다. 이 개념들이 파악하고 명확히 발언하고자 하는 현상은 (지위와 자격과 생계의) 불안정과 (이것들이 지속되고 미래에도 안정적일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신상의,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 즉 소유물, 이웃, 지역사회의) 불안함을 결합한 것이다(Bauman, 2009: 256)

2) 자기의지: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

개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안정적인 고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변지인이나 타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타자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일 수도 있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다. 규율권력은 면접대상자들의 가정, 학교 그리고 노동사회라는 공간을 통해 작동한다. 개인들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경쟁의 내면화를 사회로부터 요구받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들은 자기의지를 표출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지 혹은 현실에 타협해 살지 고민한다. 개인들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여기서 필자는 개인의 의지가 삶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높은 경우를 ‘목표지향성’, 낮은 경우를 ‘현실수용성’으로 정의할 것이다. 개인들은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개인의 의지는 외부적인 상황의 압력 속에서도 타자들의 요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한 힘을 준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개인의 의지는 억압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자기의지는 유동적인 삶을 강요하는 사회적 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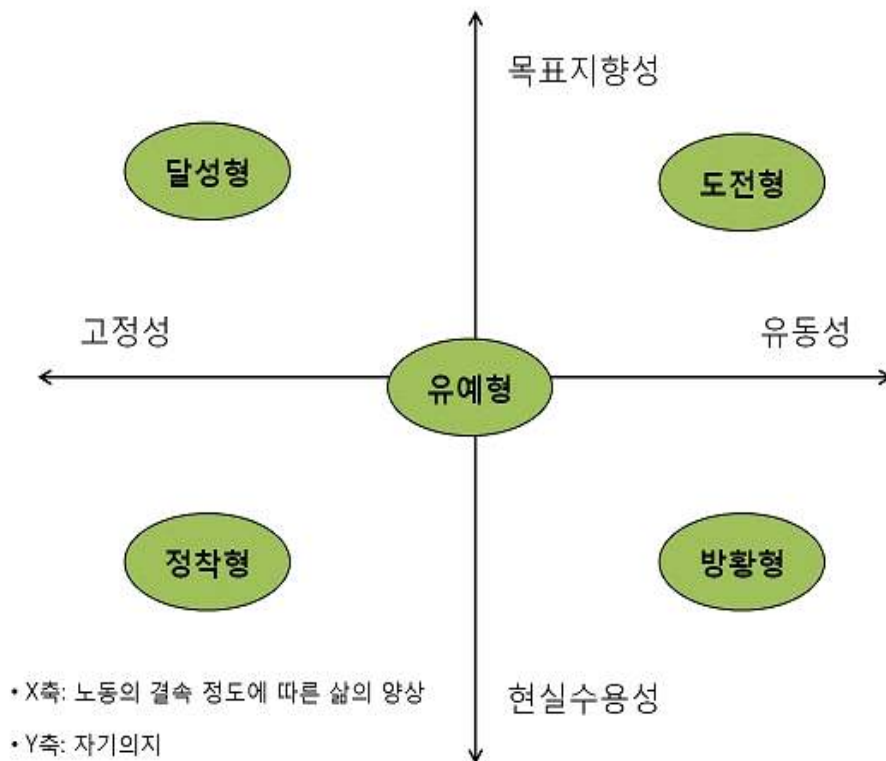
목표지향성은 주체성, 자아실현, 하고 싶은 일을 택하고자 하는 성향을 뜻한다. 개인들은 타자들의 시선을 내면화시켜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자신의 시선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목표지향성 속에서는 규율적 주체와 자기경영적 주체가 동시에 작동한다. 목표지향성은 자기 의지가 표출되기 때문에 푸코가 대안적 주체라고 표명하던 자기에 의한 자기구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목표지향성마저도 노동이 개인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끊임없이 진동한다.

현실수용성은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차선책인 삶을 선택하는 성향을 뜻한다. 현실수용성에 가까운 개인들은 단순히 생계 또는 추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노동을 선택한다. 때로는 주변 타자들의 도

16) 좋아하는 것을 하는 행위 속에서도 일상권력의 힘이 영향을 끼친다. 현실을 수용하는 측면에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숨겨있다.

움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현실수용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차선택이면서 동시에 목표지향성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삶이 나아지지 않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목표지향성을 준비하려는 계획은 좌초된다. 이렇게 되면 현실에 만족하거나, 수용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림 7> 유동하는 삶의 유형표



위의 <그림 7>은 청년세대들이 노동사회에 진입하면서 위치하게 되는 삶의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X축은 유동성과 고정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Y축은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을 의미한다. 유형의 위치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는 유형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경우이며 오른쪽에 위치하는 유형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이다.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유형은 목표지향성을 지향하는 경우며, 아래쪽에 위치한 유형은 현실수용성을 지향하는 경우이다.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나뉜다. 개인의 의지가 삶에 반영되는 정도가 강하면 목표지향성에, 약하면 현실수용성에 가까워진다.¹⁷⁾ 한편 노동의 가치나 경제성을 보장받을수록 고정성에, 반대로 보장받지 못할수록 유동성에 가까워진다. 삶의 유형은 각 조건들의 교차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2. 청년들이 처해있는 삶의 유형

청년들이 속하게 되는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고정성과 목표지향성이 강한 ‘달성형’, 고정성과 현실수용성이 강한 ‘정착형’, 유동성과 목표지향성이 강한 ‘도전형’, 유동성과 현실수용성이 강한 ‘방황형’, 성격이 복잡적이고 언제든지 지향하는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유예형’이 그것이다. 삶의 유형은 노동의 결속 정도, 개인들의 의지의 투사정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은 같은 유형을 지향하면서도, 개인적인 성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위치한다. 또 개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일을 쉬게 되었다고 하자. 그/그녀는 삶의 양상이 더욱 유동적인 것에 가깝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그녀는 자신이 평소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고자 한다. 노동의 결속도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이 경우 그/그녀는 도전형에 가까워진다.

개인이 해당되는 유형은 하나의 동일한 지점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각기 위치하는 지점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필자는 청년들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각 유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17)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은 타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는 작동된다. 자기의 자아실현을 표출하는 삶을 지향할 것인지, 현실을 수용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개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타자의 영향과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타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의지가 발휘되는 것을 의미있게 보고자 한다. 즉, ‘목표지향성’과 ‘선택수용성’의 지점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 가깝게 선택하게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표출되는 것을 의미있게 보고자 한다.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각 유형들은 네 개의 지표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공유하게 되는 공통적인 현상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달성형: 사회적 명예와 안정이 보장되는 삶¹⁸⁾

‘달성형’은 청년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향이다. 이 유형은 목표지향성과 고정성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경제적 안정성과 직업의 지속성, 사회적 명예가 보장된 고정적 삶의 형태를 취하게 된 유형이다. 이 유형의 청년들은 하고 싶은 일, 자아실현,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성향을 띤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달성형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달성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진입하고 나서도 불안은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이후의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또 다른 형태의 목표지향성과 고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 달성형의 경우에도 자기관리나 노후준비를 끊임없이 요구받는다. 심층면접대상들 중에서는 달성형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삶을 달성한 경우는 승헌(M4)밖에 없었다. 자신의 적성에 맞지만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도전형에 가까웠다.

승헌(M4)은 공무원 시험을 2년간 준비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학창시절 꿈이나 목표가 없었다. 주변 개인들에게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해왔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갔다. 그의 부모나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공무원은 의미 있는 직장이었다. 하지만 승헌(M4)은 하고 싶은 것

18) 달성형에 속하는 승헌(M4)은 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표명한다. 따라서 타자의 영향보다 자신의 적성의 성취가 강한 심층면접대상자는 아니다. 따라서 심층면접대상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 타자의 영향으로 치우쳐져 달성형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심층면접자 중 달성형에 진입하는 경우가 드문 것을 통해 달성형에 진입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청년들이 타인의 시선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달성형에 속하는 경우는 타자의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의지가 강하게 발현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군에 있어, 현재 심층면접대상자들은 공무원을 주요하게 달성형으로 지향하는 직업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달성형으로 진입하는 고정된 직장인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안정적이며 만족을 느끼는 ‘달성형’에 맞다고 여기는 직업군이 제주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사례로 볼 때, 개인의 의지와 고정성의 비중으로 볼 때, 두 가지를 지향하면서도 개인의 의지의 발현보다 고정성의 확보를 삶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없었다. 따라서 승헌(M4)은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무원이 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명예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무원이 좋다 공무원이 좋다 세뇌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 육지가면 취업할 자리가 많으니깐 다른 일해도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도 권유하고 주변사람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른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제주도에서는 공무원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학과를 가려고도 했는데 학점을 너무 많이 채워야 해서 전과를 했어요. 20학점이나 적게 들어도 되는 00학과로. (M4승헌)

한국사회에서 고시(考試)란 신분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시를 통한 사회 진출을,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공동체 참여의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고시는 첫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들의 꿈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직장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하는 많은 이들의 염원이다 (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승헌(M4)이 진입한 공무원은 안정성과 직업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 이러한 고정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하고 주변 친구들과도 연락도 안하니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부모님들도 그랬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대학교 때는 미래나 목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마음먹게 됐던 게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너무 좋아서 내년엔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제가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떨어지면 ‘헤어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계속 사귀고 싶으니깐 그 친구한테 “우리 조금만 만나자” 해서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운 좋게 합격하게 된 거죠. (M4승헌)

승헌(M4)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의 만남, 여자 친구와의 만남을 중단했다. 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더 나은 삶, 추후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더 값진 보상이 올 것

이라 믿었고, 그것이 미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중에 자격증 따고 싶어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요. (M4승헌)

승헌(M4)은 목표를 달성해 현재 공무원이 되었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달성형’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삶에서 단기적인 목표들이 부차적으로 생겨난다. 이러한 목표들은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할지 모르는 자격증, 어학 공부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노후 생활을 대비한 재테크 등의 목표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타인들이 자신보다 나아지거나 스스로가 뒤처질지 모른다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으로서 생애전반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였다.

2) 정착형: 안정의 충족과 불만족이 대비되는 삶¹⁹⁾

정착형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자아실현보다는 고정성을 지향하는 삶을 택한다. 유예형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나 좌절되는 경우, 주변의 압박을 받거나 환경적 여건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사는 유형이다. 정착형의 청년들에게는 달성형을 갈망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 후회, 집착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달성형에 도달하기 위해 유예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수용성과 고정성을 보이는 정착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안정성의 속성이 강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윤정(F5)은 원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대학교 때 휴학 1년, 졸업이후 1년 총 2년의 시간을 갖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낙방했다. 윤정(F5)의 부모는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정(F5)은 유치원선생님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삶, 타인들의 지지를 받는 직장을 갖고 싶었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달성형에 진입하지 못했다. 윤정(F5)은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마지못해 취업을 선택

19) 정착형의 경우도 다양한 심층면접대상자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정착형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심층면접대상자들의 경우 유동성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기간으로만 보장되는 노동,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의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개인의지가 표출되지는 못하지만 고정성이 보장되는 정착형에 소속된다고 여겨지는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중에서 정착형에 속하는 비중을 비교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보장성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게 된다.

부모님이 “취업하라”고 하니 “1년 정도는 내가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서 갈등이 생겼어. 학생 때 벌어들인 돈으로 [공무원 시험준비] 다 했지.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하겠다는 데 계속 터치하고. 내가 나이 먹어서 한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내 통장이 바닥나는 것과 동시에[공무원 시험준비가] 끝났지. (중략) 애들 말로는 공무원시험에 미련 있어 보인데. 나는 이일[취업한 직장] 웬지 길게 안할 것 같다고. 길게 해도 2년 정도 할 것 같다고 공부할거 있으면 잘 준비하라고. (F5윤정)

처음에는 잠깐 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했지만 벌써 3년차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불안함은 멈추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영어를 특별히 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회화와 공무원시험을 위한 영어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영어회화학원을 다니면서 ‘보람된 하루를 보낸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향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일단 영어가 왜야 [공무원을]준비 하는 거라서 영어라도 준비를 해야 해. (중략) 영어학원은 다니고 있어. 엄청 바쁜데도 일하면서 공부하니 좋은 것 같아. 그냥 2시간 정도 하는 건데 집에 가면 9신데, 막 그렇게 힘든 건 아니. 30문장정도 하는 건데 그런 외우는 거 좋아해서. (중략) 그냥 혼자 열심히 외우고, 혼자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 혼자라도 여행가서 말이라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사무실 00도 영어학원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목표가 없으면 호지부지 다니게 된다고 말하더라. (F5윤정)

윤정(F5)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시험을 염두에 두기도 한다.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이루지 못한 목표는 계속해서 주변을 맴돈다. 미래의 삶이 불안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수록,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미련은 커진다. 현재 윤정(F5)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에 진입해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의 삶에 장애물이 생길 경우 그것이 자신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정(F5)은 안정적인 정착형에 속하지만, 이후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생각한다. 윤정(F5)은 정규직에 속하지만, 아이를 길러야 할 경우 회사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즉, 윤정(F5)의 삶은 정착형에 속하지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에 위치해있다. 윤정(F5)은 현재 남자친구와 교체 중이며, 향후 결혼과 육아를 생각하고 있기에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향후까지 지속 가능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가 문제야. 이제 서른인데, 나는 웬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 같다고.. 결혼하기 전에 자리를 잘 잡아야 일도 하고 그럴 텐데 아이를 가지면 일하기가 힘들지. (F5윤정)

‘정착형’은 현실을 수용하는 정도가 강하며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다. 목표달성의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유예형에 속하는 현주(F3)는 정착형에 가깝게 위치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삶의 유형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현주의 경우도 유동성이 강한 정착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착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심층면접자를 통해 고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정착형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착형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정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다. 추후 ‘목표달성형’이나 ‘유예형’과 같은 삶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안정성의 속성이 강하기에 자신의 꿈이나 이상을 바람으로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도전형: 목표라는 희망과 현실의 불안이 공존하는 삶²⁰⁾

‘도전형’은 목표지향성과 유동성이 교차하는 유형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있으나, 경제성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경우 현재하는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직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가정을 꾸리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20) 도전형에 속하는 심층면접대상자들이 느끼는 유동성의 정도가 모두 달랐다. 이러한 유동성은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기에 덜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으며(M2창운, M3민수), 종사하고 있는 노동이 다른 심층면접 대상자들에 비해 고정성에 가까운 면접대상자도 있었다(M1윤기). 부모의 원조 없이 자신의 노동으로만 생계를 해나가거나(F2은주), 자기의 의지가 표출되면서 삶이 변화했던 경우(F1수진), 부채를 감당해야 함과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도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도전형에 있어서도 외부적 상황과 노동의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삶의 불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하는 일이 고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전형’에 속하는 유형은 꿈이나 도전과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 도전은 스스로에 대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며 열정이라는 이름은 부당한 노동환경마저도 견디게 한다. 지지집단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신의 꿈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심층면접대상자들 중에서 은주(F2)는 도전을 위해 가정을 벗어나서 일면식 없는 타지에서 생활한다. 은주(F2)는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만 생기면 잡지를 구입했다. 관련 분야를 좋아했지만, 자신의 일로 삼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부모가 요구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했으나, 취업준비단계에 이르러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잡지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부터야. 내 관심사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연예인들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 고등학교 때 고1때인가 우연히 패션잡지를 친구가 가져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예쁘고 화려한 세계가 펼쳐지잖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갔고 그러다보니 또래 애들 내용만 보다가 나중에 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있는 거야. 패션관련 해서도 옷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다른 데 관심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서 세 권씩 사기도 하고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쭉 했는데 막연하게 ‘잡지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 그걸 준비하게 됐을 때는 뭘 준비할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F2은주)

은주(F2)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타지 생활을 한다.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급여가 너무나 적었다. 그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자신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여겼다. 은주(F2)는 타지에서 스스로가 꿈꿔온 일에 도전하지만, ‘너무 계획 없이 올라왔다’고 인지했고 자신이 무모했음을 거듭 느낀다. 은주(F2)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안에서도 격차가 존재함을 경험한다. 고용시장의 요구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신과 그것에 맞춰서 준비한 타인들과의 대비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은주(F2)는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사회의 계속된 주문은 청년들에게 열악한 상황을 견딜 것을 요구한다. 광고와 기업체들의 채용선발과정, 그리고 자기

계발을 원하는 사회는 사실상 청년들에게 양질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자극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소위 ‘희망고문’을 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열정을 꿈을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관리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남는 것은 허덕대는 빛과 함께 열악해진 육체뿐이다(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내가 너무 대책 없이 올라왔구나. ‘내가 기사를 잘 할 준비를 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것에 [기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어. 어린아이가 꿈꾸는 듯이. 현실을 발견하고 접하고 보니, 내가 꿈만 꾀서는 안 되는구나. 흔히 말하는 스펙을 갖춰야 했는데... 토익이 몇 백은 넘어야 되는 거구. 유명한 잡지사밖에 못 봤어. 교지, 출판사, 부수적으로 많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눈을 돌리지 못했어. 그런 메이저는 서류전형, 면접, 토익은 800점은 넘어야 되고 4.3기준하면 적정 평점은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잡지사의 경력이 있어야 됐고, ‘아, 안되는구나 뜯구름만 잡고서 왔구나’ 그제서야 나의 자리를 안거지. (F2은주)

수진(F1)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학과로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목표가 생겨 대학원을 준비한다. 가고 싶던 대학을 가지 못했던 수진(F1)은 이후 대학원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해소하는 것 같았다. 연구자로서의 꿈을 꿨고, 현재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느낀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부채와 생계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어찌보면 열정이긴 한데 제가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으면 그 열정도 식을 수 있잖아요. 생존자체가 안 돼버리면. (중략) 저의 문화를 좋아해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저의 경우 국수주의적인 것이 있었어요. (중략) 이러한 열정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마련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데 지금도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요. (F1수진)

수진(F1)은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삶이 나아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게 된다. 자신과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열정에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도 없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의

어려움을 잘 버텨나가는 것이다. 그녀에게 삶은 불확실하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은 “커질 때도 있다”가 “다시 어려질 때도 있다”고 할 정도로 들쭉날쭉하다.

기대 안 해요. 제가 박사학위를 고생고생해서 머리털 빠지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만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중략) 지금도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과정 같아요. 커졌다고 느낄 때도 있다가 어려질 때도 있다가 다시 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F1수진)

창운(M2)과 민수(M3)는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한다. 창운(M2)의 경우 현재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우며, 정치와 관련된 분야에서 기회를 얻고자 한다. 민수(M3)는 부모님과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만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 도전형에 속하지만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꿈은 아직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 예전에는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이라도 나서야 되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문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M2창운)

꿈이요. 저는 아직도 꿈을 안 찾았거든요. 아직도 찾고 있는 거구요. 애매하죠. 찾고자 하는 그 과정이 제 꿈인 것 같아요. 인생이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인데, 그게 제 꿈인거죠. 자아를 찾는 과정. 그게 누구나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하나를 이루는 게 경험인데 그것을 이루는 게 자아를 찾는 것이고 저도 그걸 찾는 거구. (중략)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겠어요? 꿈을 밟기 위한 과정에서 직업적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밟고 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데 실패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실패로 인해 너무 낙인이 세요. (M3민수)

꿈이나 목표는 불분명하지만, 일시적인 경험들은 쌓여 삶으로 구성된다. 면접 대상자들은 계속되는 일시적 경험을 통해 순간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윽고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고정성을 보장받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일에 만족하려 한다. 도전형에 진입하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경험하기도 한다. 윤기(M1)의 경우 다양한 유형을 경험했다. 윤기

(M1)는 안정적이면서 평소 관심이 있던 농업분야에서 일하고자 했다. 달성형이 되기 위해 유예형을 거쳤으나, 계속해서 원하던 직종에서 탈락했다. 이후 차라리 경력을 쌓고 안정사회에 진입하고자 정착형을 거치려고 했으나 현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내 주변에 공무원 시험을 거의 준비했어. 몇 명 뽑지 않아서 그 중에 한 명 되는 건데, 우리 때는 두 명 뽑았어.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서 새벽 2~3시에 공부해서 집에 갔는데. (중략) 시험에 다 떨어졌어. 그렇게 되고 2년을 준비하게 되니까 다짐을 하게 됐어.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2년을 준비하게 되면 5년을 준비하게 된다고 차라리 다른 직장에 가서 커리어를 쌓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어. (M1윤기): 달성형에 진입하고 했던 윤기

안정적인 삶을 지향했던 윤기는 축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됐다. 추후 정규직화가 가능하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규직화는 가능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당시 윤기(M1)의 삶은 유동적이면서 목표가 없는 방황형으로 흐르고 있었다. 윤기(M1)는 이럴 바에 자신이 본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듣도 보도 못한 육을 [일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워낙 일이 많아. 송아지 귀를 뚫고 그 래야 되는데 3개월만 되면[송아지가 자라면] 엄청 뛰지. 한번 [송아지한테] 맞은 명이 2년 갔어. 000같은 경우는 소를 한 여섯 마리를 관리해야 되는데 빠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 (중략)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거기서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본성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랬어. (M1윤기): 정착형에 진입하고자 했던 윤기

윤기(M1)는 현재 시민사회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일은 고될 수 있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결속이 보장되지 못하는 유동성은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윤기(M1)처럼 삶의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빈번하다. 이는 개인의 내부적 결함보다 외부적 환경의 열악성에서 오는 요인이 더 크다. 윤기(M1)처럼 자신의 적성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경로를 변경하게 될 수도 있다. 삶이라는 긴 항해에서 참여자는 노동의 열악성, 생계적 빈곤 등의 위기를 지속적

으로 마주하게 된다. 개인들은 현재를 잘 견디면,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 현재 지옥을 살면서도 지옥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춰야 한다(Bauman, 2010: 175). 이러한 믿음은 유동적인 삶을 사는 개인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도전형’은 유동사회 안에서 목표를 지향하는 선택을 취한다. 이들은 이탈의 경험을 갖춰가면서 스스로의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생계 압박 때문에 감정과 육체의 우울감을 갖기도 한다. 유동적인 삶의 형태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생계를 위한 수입이 일정하거나 부모의 원조가 있는 경우,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부모의 원조가 없는 경우, 자신이 처한 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보람과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우울감을 동시에 느낀다.

4) 방황형: 즉각적 만족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삶

방황형은 유동성과 현실수용성이라는 두 성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경제성 및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는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결국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포기하는 유형이다. 삶의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방황형’은 진로에 대한 탐색을 중단한 상태이다. 탐색과정을 거쳤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또한 노력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정적 우울을 느끼고 있다. 누구보다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목록화하기도 한다. 목표를 지향할 수 없으며 현실에 수용해야 하기에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에 민감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수연(F4)이다. 수연(F4)은 부모님의 권유로 유아교육과에 진학했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책임감으로 직장생활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계문제 때문이었다. 과도한 업무에 비해서 수입은 턱 없이 낮았다. 수연(F4)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했다.

서울에 1년 정도 갔던. 이것저것 경험해보러 갔다가 했다가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는 [유치원] 오후반만 했지. 그냥 여러 가지 만들기 같은 거 배웠. 미술도 배우고 그랬지. 그런 것도 배우고 싶어서 배워신디. 너무 비싼거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 근데 제주도에서는 수요가 없어. 문화생활도 없고 이런 것에 돈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전문직 해야 돼. 어머니들 인식도 그렇고 나도 내년에 하루 종일 일하는 데 가그넝 돈이나 벌어서야. 지금 네 시간 일하는데 얼마나 벌크냐. (F4수연)

적성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고 싶다는 욕구는 그녀를 ‘유예형’으로 진입하게 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해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다양한 업무를 배워서 제주에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내년에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중략) 카드로라도 해서 결혼하젠 해신디. 결혼은 꼭 현금으로 해야 된덴. 부주로 해도 사람이 많이 와야 결혼을 하는데 결혼에 올 사람도 없고 나는 별로 [결혼식에 올 사람이] 없을 거 닐아. 소소하게 할 거고 새마을회관 막 공짜인데서 하고 싶은데 소소해도 돈이 든다네. 투 룸이라도 [시집] 갈 거 닐아... 가구도 거의 안할 생각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둘 다 너무 썬. 뭐했는지 모르크라. (F4수연)

수연(F4)은 현재 유치원에서 단기업무를 하고 있으며 방황형에 속한다. 수연(F4)은 불안감을 안고 목표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럭저럭 현실을 순응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한다. 수연(F4)은 현재 7년간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 주변의 친구들이 속속히 결혼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요새는 결혼하는 시기잖아. 주변에 결혼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닐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제일 오래 사귀었고, 우리오빠가 제일 나이 많아. 우리 연수로 하면 7년이지. 근데 결혼은 안하고 (중략) 결혼을 돈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없어서 어떻게 식을 치르냐? 집에서 해줄 형편도 아니고. (F4수연)

수연(F4)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녀는 현재보다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을 해야 돈이 모여.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오빠 돈으로 쓰니까 돈이 어서. (중략) 결혼은 내년에 할 수 있을 거 다행. 하고 싶어. 미뤄도 돈 없을 거 다행고 빨리하는 게 나올 거 다행. 더 쭈글쭈글해지기 전에 (중략) 사는 이야기하면 안되. 그러면 우울해. 생각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울한데 그냥 살아. 내 친구도 [사는 이야기하면] 우울해해.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게. 결혼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살게 우울한거. 그런 이야기한다고 나아지지도 않고 현실만 닳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의] 말 안 해. (F4수연)

그녀는 현실을 수용하는 데에서 오는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만족을 위한 목록을 그린다. 결혼 이후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녀는 ‘아기를 낳지 말아야한다’는 포기항목도 목록에 넣는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견디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자신이 하고 싶은 목록에 넣기도 한다.

5년 정도 일하고 유럽에 여행가고 싶어. 그 정도면 될 거 다행. 아이는 안 낳젠. 아이 낳으면 나중에 어떻 그렇게[여행] 가나? 애들 보면서 자신을 내팽개치고 그러는 아이가 인. 그럴 바에 안 낳는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 ‘능력 없으면 낳지를 말아야지’라고 돈 많으면 하나는 낳 수 인. 예전 엄마 네는 아이를 쉽게 키웠지. 지금은 장난 아니. 요즘 엄마들이 잘 키우려고 하면 돈이 장난아니. 더 자유롭게 키우는 게 더 돈 들어. 육지는 더 장난 아니네. 우리 애만 거지처럼 옷 입힐 것도 아니고. 돈 있어야 그렇게 하지. 웨딩사진은 서울에서 하고 싶어. 돈 없어도, 여기서 하면 안 예뻐 안 예뻐. 그날만큼은 못생기기 싫어 내년에는 내가 어딘가 꼭 들어갈거. (F4수연)

타협의 여지가 없는 미로와도 같은 상황에서 삶은 자족적 에피소드들로 분할되게 된다. 행위자의 의도에 일치하는 목표는 자꾸만 회피하는 듯 물러나는데, 어쩌면 그것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마다 얻게 되는 즉각적 결과로, 그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소비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Bauman, 2009: 222-224).

방황형은 축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삶을 살던 윤기(M1)도 거쳤던 유형이다. 방황형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 방황형에 속한 면접대상자들은 다른 유형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단절적으로 나뉜 장기적인 상태로 머무르게 될 수도 있다.

5) 유예형: 선택의 기로에서 준비하는 삶

유예형은 가정과 학교를 거쳐 노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유형은 노동사회에 진입해본 경험이 없거나 진입하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탈한 후 유예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형은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 않는 유휴인구와 같다. 이는 어떠한 곳에도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떤 유형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한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그 예이다. 스펙쌓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며,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도 휴학 후 취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유예형은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속한 유형이다. 그들은 목표지향성과 현실수용성, 고정성과 유동성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들은 이후 여건에 따라 달성형, 도전형, 정착형, 방황형의 삶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 유형의 청년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머무르는 기간도 길어졌다.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예형은 돈벌이 없이 자기계발과 같은 준비를 진행한다. 유예형의 증가 현상을 통해 과거의 다른 세대 청년들보다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남일(M5)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예형에 속하지만, 공무원이 되어 달성형에 속하고자 한다. 남일(M5)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했지만, 계속 낙방하게 되자 포기하려고도 했다. 힘들었던 순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남일(M5)은 대학원 진학과 일반 기업체 입사,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길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3년째 시험을 준비 중에 힘들 때도 많았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 친구들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말해 놓은 게 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친구들한테도 연락 못하겠고 숨게 되더라고요.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것을 할까란 생각에 다른 데 알아보기도 했어요. (M5남일)

남일(M5)은 현재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자 친구와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다. 그는 계속된 낙방 속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다.

지금 내가 27살인데 20살로 돌아가도 24살로 들어가면 할 수 없는 이유들보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 친구도 만나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든 게 작년부터였어요. 그랬더니 많이 힘들지는 않아졌어요. (M5남일)

유예형은 스스로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신을 억압하는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은 더욱 커진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기에 심리적 좌절감이 커지면서 일단 무조건 소속을 원하기도 하다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복합적인 행동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적격이고 그게 되어야 미래를 살아갈 수 있고 절박했기 때문에... 지금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M5남일)

현주(F3)는 학창시절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관련된 학과에 진학했다. 학창시절에 성적이 중·하위권이었기 때문에 노동사회에서는 한 눈에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자 했다. 그녀에게 그러한 직업은 ‘승무원’이었다. 대학시절 승무원과 관련된 항공운항과에 진학하여 이에 대한 면접준비나 취업 준비를 했다. 그러나 여러 항공사와의 면접을 통해 ‘승무원과 어울리지 않는 외모’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외모에 변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서류를 낼 수 있는 기본적 자격조건을 위한 준비, 면접이 80%니깐 영어면접 준비, 미소연습, 토익점수 만들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위해] 친구들이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 여러 항공사를 많이 다녔는데 “마른 몸매랑 얼굴이 동글동글하지 않아서 인자해보이지 않고 각쟁이 같아서 안 좋아 보인다”고 [면접관이] 그랬어. 외모가 편안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얼굴이 각져서 그래 보인다”[외모가 항공사에 어울리

지 않다] 직접적으로 그랬거든. 나도 ‘빨리 교정하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국한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F3현주)

유예형에 속해있던 현주(F3)는 삶의 유형이 변화된다. 고정성이 약하기는 했지만 현실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현주(F3)는 목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내 대출업무를 하는 곳에서 2년간 근무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기업에서 대출업무로 다시 2년간의 계약직을 맡게 된다. 현주(F3)는 계약된 2년의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삶을 갖춘 듯이 보였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금은 유예형에 놓여있다. 고정성의 정도가 유동성에 가까운 정착형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현주(F3)는 다른 직업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원하던 승무원의 삶도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구조는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 각자의 선택처럼 재구성된다. 현주(F3)가 느꼈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개인의 내면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현주(F3)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적 성향이 고정적이라고 느꼈지만, 다른 노동시장을 진입한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정적이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삶의 실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현주(F3)는 직업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 변동이 가능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열어둔다. 이는 계속된 변화에 대응하기 쉽도록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다.

승무원은 인생에서 내 숙제같아. 중간에는 힘들었는데 후회 없을 때만큼 안 해봐서 ‘그때는 그게 모자랐어’라는 그런 후회가 있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면서 아직도 고치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또 죽을 때 까지 [승무원을] 하고 싶지 않아. 1~2년만 해도 만족할 것 같아. 장기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열심히 하다보면 충분히 길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았기 때문에 (중략) 내가 직장을 세 군데를 바꿨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살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고 그때 그때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어. (F3현주)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일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고귀한 인간’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법이 없으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그 일이 칭송받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은 경험을 수집하는 소비자의 미학적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주는 능력 여부로 평가되고 측정된다(Bauman, 2009: 226). 일시적인 경험을 소비하기 위해 스스로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은 다시 다른 경험으로 대체된다. 현주(F3)는 짧은 여생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한 여정은 삶에서 계속해서 단절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불안은 타자를 통해 다시 다른 타자에게 작동되며 불안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누구나 좋은 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제한된 조건은 계속된 경쟁을 동반한다. 또한 그러한 경쟁에서 타인이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다른 예비경쟁자와 각을 세울 수도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이랑 끊으면 되거든. 경제적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 같지 않아. (F3현주)

유예형은 자기경영하는 주체의 모습이 강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주체는 사실상 일상의 권력을 통해서 훈육되어 온 주체이다. 유예형에 속하는 면접대상자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자신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지하며, 위기를 관리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유예형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에 자신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현재 직면해있는 현실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대다수의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유예형을 경험해봤다. 이후 다른 유형에 만족스럽게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자들은 달성형, 정착형, 도전형, 방황형, 유예형에서의 삶을 택한 뒤에도, 다른 유형으로 변동했다. 따라서 각 유형들은 언제나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의 변동은 구조적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유형을 변경해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기에 문제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구조적 불안정은 개인이 변동한 곳에 위치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인의 내면으로 뻗어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변동 경험은 노동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개인들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하게 내면화된다.

3. 유동하는 삶의 다양한 실천과 그 모순

개인들의 삶의 유형은 노동의 결속정도와 개인의 자기의지의 표출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위치한다. 이러한 삶의 유형은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견고하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되어간다. 공통된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각 유형을 통해 모든 심층면접대상자들이 삶에서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반복된 실천을 멈출 수 없게 하는 일상의 실천과 그러한 실천의 모순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계속해서 변동하는 모습을 취한다. 달성형, 정착형, 도전형, 방황형, 유예형의 각 유형을 택한 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의 유형변화는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표 4> 심층면접대상자의 삶의 유형 변화

대상자 (연령)	직장경험	유형 변화	현재 유형으로 이동하게 한 주요 요인	직면한 위험(현)	타자와의 관계(현)
F1수진 (34)	생계형 노동	방황형	자기의지	경제적 어려움	남자친구·가족의 정신적 지지
	대학원 진학	유예형			
	박사과정과 강의 병행	도전형			
F2은주 (28)	사무(계약직)	방황형	자기의지	경제적 어려움	진로 갈등으로 부모부터 독립
	기자(계약직)	도전형			
F3현주 (28)	승무원 준비	유예형	경제적 어려움	계약기간 만료	남자친구·가족의 정신적 지지
	(2년 계약직) 무직	방황형	계약기간 만료		
F4수연 (28)	유치원 근무	방황형	남자친구의 도움	경제적 어려움	부모와 진로에서 갈등. 남자친구와 결혼고려
	1년간 기술 배움	유예형			
	비전일제 유치원 근무 (계약직)	방황형	제주에 관련 직장 없음		
F5윤정 (28)	공무원 시험 준비	유예형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의 걱정	육아 출산 후 노동의 불안정성 염려	진로갈등 있음.
	사무직(정직)	정착형			
M1윤기 (31)	공무원준비생	유예형	시험 준비의	만족하는 편	부모의 직장에 대한 염려
	축산업(계약직)	방황형	장기화가가능성		
	시민단체(정직)	도전형	자기의지		

대상자 (연령)	직장경험	유형 변화	현재 유형으로 이동하게 한 주요 요인	직면한 위험(현)	타자와의 관계(현)
M2창운 (28)	생계형 노동과 관련 업무경험	도전형	자기의지, 타자의 영향(선생님)	만족하는 편	부모의 직장에 대한 염려
M3민수 (27)	관심에 따른 노동경험	도전형	자기의지, 타자의 도움(시민단체)	향후 군입대에 따른 생활변화	부모의 직장에 대한 염려
M4승현 (27)	공무원 시험 준비	유예형	타자의 영향이 큼. 자기의지도 작동	심리적 불안	부모님의 지지, 여자친구의 지지
M5남일 (27)	공무원 시험 준비	유예형	타자의 영향이 큼. 자기의지도 작동.	만족	부모님의 지지, 여자친구의 지지
	공무원	달성형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자기의지가 표출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자의 영향,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삶에서 계속된 불안을 느낀다. 따라서 심층면접대상자들이 삶을 변화시키려 할수록 유동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작동한다.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에서 삶을 변화시키려는 개인들의 노력은 오히려 모순을 내재화한다. 실천의 내재화된 모순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접대상자들의 공통된 실천의 모습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묘사할 수 있다.

1) 목표와 현실: 자기의지의 유예

심층면접대상자의 상당수가 유예형에 위치해본 경험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자기의지가 유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우만은 『액체근대』에서 ‘미룬다’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미룬다’는 것은 현재에 속했던 것을 내일에 놓기 위해,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미루기는 게으름, 나태, 침묵이나 권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적극적 자세, 잇따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권을 취하고, 우리가 고분고분 저항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일어난 일들과는 다른 양상을 만들려는 어떤 노력으로 인정된다(Bauman, 2009: 249).

유예형에 속하는 심층면접자들은 현재를 미뤄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타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가능성은

매번 열려있었지만, 그러한 성취감을 얻어내는 것은 일부에게만 해당되었다. 경쟁에서 밀려난 심층면접대상자들은 다른 유형으로 이동하게 된다. 유예형에 속했던 개인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삶을 유예하지만, 준비를 하는 동안 과연 자신이 진정으로 잘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바우만은 미루기의 특성이 ‘연장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미루기는 모호함을 반영한다. 순례자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손에 넣으려는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 미룬다. 그런데 그것들을 손에 넣는 것은 그 순례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미루기는 사전에 정해진 일체의 시간상 제약을 깨고 무한히 연장되는 내재적 속성이 있다. 미루기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다. 미루는 행동에서 뒤로 연기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루기 그 자체가 끝나는 것, 그 종결이게 마련이다(Bauman, 2009: 251). 따라서 바우만은 미루기 자체가 현재를 뒤로 놔둔 상태이기에 그 속성상 연장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유예형을 경험한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유예한다. 그러한 시간을 투자한 이후 유형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상적인 상태인 달성형으로 진입한 경우(M5남일)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형들은 이후 다른 유형에 진입한다. 진입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의 불안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삶을 위해서 현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를 유예함으로써 인해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 강화된다. 개인들은 유동하는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커진다. 그러한 욕망이 달성되는 순간, ‘유예했던 순간의 자기절제’가 보상받는 것을 느끼지만, 다시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절제가 필요해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함을 다시금 느낀다.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혹은 지금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를 대면하는 것은 미뤄진다. 심층면접자 대다수는 노동의 안정성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2) 개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기관리

유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자기경영을 내면화한다. 개인들은 탈락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위기를 관리해야 하고, 불안에 대해 스스로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관리는 스펙을 쌓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외모로 자신을 관리해야 하며, 스스로의 감정마저도 조절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의 계발을 위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현주(F3)는 양악수술을 한 후 다시 승무원에 지원하고자 한다. 외모에 대한 관리의 끝 자신이라는 상품을 더욱 빛나게 한다. 이러한 외모는 자신을 노동자로 채용하거나 연애 혹은 결혼하고 싶은 상대자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악]수술을 잘 끝내고 싶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 꿈과 관련이 없더라도 결혼을 내 힘으로 2년 안에 할 생각이야. 건강해지고 수술이 다 끝나면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꿈에 다시 한번 제대로 도전하고 싶어. 내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걸[승무원을] 왜 하고 싶고 당신[면접관]네가 나를 왜 뽑아야하는지 잘 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F3현주)

승무원이 되고 싶은 현주(F3)는 면접관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관리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우만의 말처럼, 만일 그들이 취직 전망이 어둡다고 괴로워하거나 장래를 고민한다면, 이는 그들이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훌륭하지 않거나,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자기 표현력과 남을 감동시킬 정도의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이런 식의 설명을 믿게 되었고,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 양 행동하게 된 것이다(Bauman, 2009: 56).

면접대상자들은 노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계속된 자기경영을 내재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에는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들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다. 지금의 자기 모습은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불완전한 모습이며, 완전한 모습은 미래에 놓여있다.

일 그만두고 대학원 시험 준비하면서 거기[아는 언니 집]에 앉아서 살았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는 관촉일이라도 쉽게 구했거든요. 심지어는 바비큐 하는 데서 양배추 가는 것 썰고 포장하는 것도 하고 저는 아르바이트할 때 부끄럽고 그런 게 없어요. (중략) 서울에서 제일 비싼 타

워펠리스와 경쟁하겠다는 것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였는데 4대보험 빼니까 160만원 받은 것 같은데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교 다니고 그렇게 1년 정도 그 생활을 했어요. (F1수진)

그때도 생활비를 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빵가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필리핀에서 온 외국 손님인데 아이엄마이기도 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영어선생님이 돼달라”고 말하고 다른 친구랑 같이 15만원씩 모아서 집을 제공하고 선생님을 초대해서 6~7개월 동안 영어면접 준비하고 그랬어. 빵가게 알바를 하면서 했어. 욕심은 이것저것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F3현주)

이러한 자기경영은 일순간 표출되는 것이 아니다. 푸코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애하는 단순한 양육의 시간, 주어진 보살핌, 부모의 문화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문화적 자극 등이 모든 것들은 인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Foucault, 2012: 326). 따라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인적자본을 구성하기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풍요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사회의 불안정을 공유하는 부모는 계속해서 노동을 하며, 자녀에게 경쟁에 대해 학습하기를 요구한다.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투사시켜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자녀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서열화를 통해 경쟁에 대해 인식한다. 이 속에서 청년들은 인적자본으로서의 필요성을 내면화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수진(F1)과 현주(F3)는 재정적인 위기를 관리해야 했으며, 이 위기에서 오는 책임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었다.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로 되돌려졌다.

청년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한다. 변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관리는 마음마저도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끊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이랑 끊으면 되거든. 경제적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생략)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아. 친구를 잃어보고 해서 그리고 그런 것도 책[자기계발서]에서 얻었고 요즘에는 모임도 다양하고 그럴 의향만 있으면 만날 사람은 많으니깐 두려움은 없어. (F3현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하게 열려있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감정은 익숙하던 만남이 아닌, 일시적 만남을 통해 채울 수도 있다. 면접대상자들은 타자를 통해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때때로 스스로를 소외시키려 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이 조절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감정마저도 쪼개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남일(M5)과 승헌(M4)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어했다.

가족, 친구들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말해 놓은 게 있는데 계속 떨어지니깐 친구들한테도 연락 못하겠고 숨게 되더라고요.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M5 남일)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하고 주변 친구들하고 연락도 안하니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부모님들도 그랬고 심리적인 요인이 힘들었어요. (M4승헌)

은주(F2)는 혼자서 있을 때의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우는 것이거나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우는 걸로 풀어. 예전에는 고시원 사는 게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여기는 조용해야 되고 소리도 못 내고 눈치 봐야 하고 [고시원이] 나를 닮은 것도 같고 사회 안에서도 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 해소하지 못하니까 내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안정적인 게 아닌 거야.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되서 외로움이 있는데 어디다가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겹겹이 쌓아줘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한테 빠져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고 [정작]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지. (F2은주)

개인들은 위기를 스스로 관리하며 모든 책임을 개인화한다. 그렇지만 삶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해소시키지는 못한다. 사람들과 일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삶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를 자신이 내면화할수록 개인들의 삶은 협소해지고 불안은 끊임없이 작동한다.

3) 소비: 일시적 보상과 불안정한 노동의 유지

개인들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확장한다. 책임이 확장될수록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들은 보상을 필요로 한다. 이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소비라는 장치를 통해 일시적 보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개인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개인들은 더욱 지속되는 보상을 받고자 하지만 충족될 수 없음을 느낀다.

소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기관리를 위한 투자, 생계를 위한 지출, 욕망이 작동하는 소비가 그것이다. 소비를 하면서도 만족은 충족되지 않는다. 수연(F4)는 향후 세계여행을 계획한다. 세계여행은 미래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노동에 충실해야 한다.

5년 정도 일하고 유럽에 여행가고 싶어. 그 정도하면 될 거잖아. (F4수연)

현주(F3)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스트레스는 순간적으로는 해소된다. 그러나 만남을 이어갈수록 경제적 지출은 커진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출은 스트레스로 변한다.

연애도 예전에는 스트레스였어. 돈을 써야 되니까. 우리 둘이 돈을 안 쓰고 하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교통비부터도 그렇고.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비용도 들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교육으로도 필요하고. (F3현주)

수연(M4)의 여가는 돈이 덜나가는 활동들에 맞춰진다.

여가생활? 영화보거나 그런 거 해. 근데 돈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것도 안 해. 돈 어시면 밖에 나가기도 싫다. 차도 없고 하니까 놀러 한번 가도 렌트비에, 기름 값에 그래서 그냥 집에서 놀아. 집에서 오빠한테 요리나 해달라고 한 다음에 먹어. (M4수연)

은주(F2)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연애마저도 사치라고 말한다.

여기 와서 연애를 꿈꿔보지 못했어. 내 한 달도 빠듯하고. 나에게 연애는 사치다야. 지금 너무

외로워서 연애하고 싶고 사람만나고 싶고 친구랑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눈치만 보고 그러거든. (F2은주)

일부의 면접대상자들은 파편화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 현주(F3)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격증이나 영어회화를 준비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유동성에 대비했다. 구직활동을 할 때 다른 직종의 일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언제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회사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전문대는 채용자체 여건을 잘라버려. 그러면 대학을 또 다녀야 하는 거잖아. 그것을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 지원자격조건이 되어야하고 그런 학과를 안 나왔으면 그런 경력이 몇 년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회사를 안 나와도 그런 것[전문대]을[를] 나와도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회사를 들어가도 일을 배우고 싶는데 [회사에서] 학사 뭐 아니면 지원이 안 되니까. 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전공에 맞춰서 다시 다니면 돈 들고. (F3현주)

면접대상자들은 스펙을 채우기 위해 소비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유예되기도 했다. 그들의 꿈은 자기관리를 위한 투자로 대체됐으며,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만족을 느낀다. 위기에 대한 개인들의 절제는 다시 욕망이 작동하는 소비로 해소됐다.

웨딩사진은 서울에서 하고 싶어. 돈 없어도, 여기서 하면 안 예뻐 안 예뻐. 그날만큼은 못생기기 싫어 내년에는 내가 어딘가 꼭 들어갈거. (F4수연)

삶에 대한 보상은 욕망이 작동하는 소비로 해소되고 만족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개인들은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갈등을 견뎌낸다. 그러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옥죄어 온다. 소비를 통해 일시적 보상을 얻으려하지만,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주변 대다수의 타자는 스펙을 쌓는 것을 일상화하며, 경쟁을 내면화한다.

바우만은 소비를 통한 만족이 일정한 시간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소비에 대한 욕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욕망은 우

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작동된다. 그러나 충족은 곧 그 욕망의 끝을 말해준다. 소비의 미학에 지배받는 사회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충족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충족은 절대로 완벽하게 충족될 수 없으며, 결핍되지 않을 정도로만 충족을 느끼게 된다(Bauman, 2009: 254). 그러나 대다수의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걱정을 동반한다. 은주(F2)는 충분하지 않은 수입에 비해 소비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일시적 충족을 위해 감당해야 되는 개인들의 책임은 크다.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면 자신의 욕망을 타하게 되기도 한다.

나는 여덟시간 일해서 4만 4천원을 받아. 일수식이어서 달이 적은 날은 적은 돈을 받는 거고 일단 1달 받게 되면 4대보험 빠지면 100만원에서~120만원대야. 근데 생활비로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70~80만원이거든. 고시원비가 35만원씩 차비 7만원에 식비 10만원에 뒤풀이마다 돈 걷고 이외의 생활비(휴지, 물품 등)하면 나가는 돈들 하게 되면 적금은 생각하기도 못하고 어쨌든 그전에는 주말에 일일알바도 하고 그랬었거든. 호텔 같은데서 알바도 하고 그랬고 그래. (F2은주)

유동하는 삶에서 개인들은 다양화된 실천(자기의지의 유예, 자기관리, 소비)을 하면서도 결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타자는 경쟁과 위협에 대비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긴다. 따라서 개인들이 경쟁규범을 내면화할수록 불안은 내재화되며, 불안정한 개인들은 확산된다. 개인들이 불안을 해소하려 행하는 실천은 오히려 불안을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불안정한 노동구조에서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과 실천방식 그리고 청년들이 영위하게 되는 삶의 특성에 주목한다. 현대사회의 유연화 된 노동시장은 개인들에게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은 체제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한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에 순응하는 주체, 자기경영을 통해 이러한 경쟁체제에 대응하는 주체의 모습을 논의하기 위해 푸코의 규율권력 및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 도구로 삼았으며, 현대사회가 개인들에게 강제하는 삶의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바우만의 액체근대 개념을 원용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양상을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을 살펴보고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검토했다. 제주도의 청년정책은 일시적 고용을 기조로 운영됐으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대학사회에 전가했다. 제주도와 대학의 청년정책에 따라, 대학사회와 학생들은 고용불안을 감지했으며 학업과 생활전반을 취업 중심으로 맞춰나갔다.

제3장은 심층면접대상자들은 가정·학교에서부터 삶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 일부 심층면접대상자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경제적 차별과 성적에 따른 서열화를 경험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삶을 체감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감을 체득했다. 개인들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푸코가 말하는 규율권력에 순응하는 주체로 형성되며, 동시에 경쟁규범을 확립한 자기경영적 주체의 모습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노동사회로 진입하는 심층면접대상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주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제주지역 청년들의 삶은 노동의 결속도와 자기의지의 표출도에 따라 구분됐다. 우선, 삶의 양상을 이루게 하는 노동의 결속도를 바우만의 액체근대 이론을 통해 구성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이 결속되어 평생의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초기근대와 달리, 현재 액체근대로 오면서 노동의 결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이 노동의 결속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고정성, 노동의 결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삶의 양상은 유동성을 띠게 된다. 다음으로, 삶의 양상의 변화에 대해 각 개인들의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의지의 표출정도가 삶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목표지향성으로, 자기의지의 표출정도가 삶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경우를 현실수용성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 유형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청년들의 개인적인 평가와 성찰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들의 삶의 양상을 공통의 사회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개고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달성형’은 목표지향성과 고정성 두 가지를 만족하는 유형이다. 다른 유형에 비해 경제적 안정성과 직업의 지속성, 사회적 명예가 보장된다. ‘정착형’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자아실현보다는 고정성을 지향하는 삶을 택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기에 목표에 대한 열망, 후회, 집착 등이 나타난다. ‘도전형’은 목표지향성과 유동성이 교차하는 삶의 모습이다.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있으나, 경제성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 ‘방황형’은 유동성과 현실수용성의 두 성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경제성 및 직업의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며, 적성에 맞는 일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유예형’은 각 유형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노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장기적인 준비를 한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유동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삶의 양상을 이루는 노동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정도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유동하는 삶 속에서 개인들은 자기 의지의 표출을 미루거나 유예하며, 유예된 시간을 자기관리의 실천으로 조직하거나 소비생활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불안은 결코 해소되지 않으며, 다양한 유형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유동하는 삶에 내재된 불안을 끊기 위한 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의 주체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고민과 사색의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가족이나 또래 집단, 보이지 않는 경쟁자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둘째,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원

하는 방식의 순위 가르기에 매몰되어 있다. 청년들은 이러한 요구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의 자기관리가 이뤄진다. 일률적으로 성과내기에만 급급한 교육체제를 벗어나 자신의 자아를 찾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청년들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삶의 토대가 확고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자기의지가 표출되는 삶보다는 외부요인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는 그들이 놓인 구조적 상황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저 청년들의 변화 상태를 살펴보고, 자신의 숨겨진 욕구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하며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안정성과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청년들에게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 효율성과 경제성에 맞춰진 일자리가 주요하게 제공되고 있다. 다섯째, 적성을 찾는 동안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미뤄둔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복지, 청년수당 등의 방법을 강구해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인 심층면접자수가 많지 않으므로, 이 논문의 이론과 주장이 반드시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폭넓게 연구해야 하며, 구직포기가 장기화되는 청년들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주지역 출신으로 심층면접대상자들을 한정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승진. 2010.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방향과 과제.” 『제주발전포럼』 제35호.
- 강영주. 2009. “청년실업 해소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교육부. 2014.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2014 비전 및 중점과제.”
- 김석진·양희승. 2004. “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 김용성. 2008.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박미선. 2010. “사회 없는 개인과 안전장치 없는 시대의 가벼움 : 「액체근대」, 지그문트 바우만 저 <서평>.” 『영미문학연구회』 제28호.
-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웅진지식하우스.
- 양덕순·강제상. 2007.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전략에 대한 연구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5년 성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2호.
- 엄관용. 2006. “20대와 40대의 새로운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월간 말』 통권 244호.
- 엄기호. 2013.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도서출판 따비.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주)레디앙미디어.
- 유재인. 2010. 『위풍당당 개청춘』, 이순.
- 윤상우. 2013. “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아세아연구』 제56권 3호.
- 이병천. 1999. “한국의 경제위기와 IMF 체제: 종속적 신자유주의화의 모험.” 『사회경제평론』 제13호.
- 이상철. 1987.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제8권 3호.
- 이영룡. 2013. 『노동사회와 협동적 자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이찬영. 2008.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행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3호(2008년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13. “2013년 일자리 창출 종합추진 계획.”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8권 2호.
- 주은우. 1994.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94호 봄호(통권 제21호).
- 참교육연구소. 2014. “어린이 문화와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 최요철 외. 2008.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한은조사연구』 2008-19호, 한국은행.
- 최태섭. 2013. 『잉여사회』, 웅진지식하우스.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 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2013. “최근 10년간 호남권 및 제주도 인구가동.”
- 홍정순·채창균. 2011. “제주지역 청년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藤純一(사이토 준이치). 2005. 自由. 이혜진·김수영·송미정 역. 2011. 『자유란 무엇인가 (별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 한울.
- 佐藤嘉幸(사토 유시유키). 2009. 新自由主義と權力. 김상운 역. 2014. 『신자유주의와 권력』, 후마니타스.
- Bauman, Zygmunt. 2000. Liquid Modernity. 이일수 역. 2009. 『액체근대』, 강.
- Bauman, Zygmunt. 2007.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한상석 역. 2010. 『모두스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후마니타스.
- Foucault, Michel. 1975.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 1994. 『감시와 처벌』, 나남 출판사.
- Foucault, Michel. 1976. La volonté de savoir. 이규현 역. 1990.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나남출판.
- Foucault, Michel. 1984. Le souci de soi. 이혜숙·이영목 역. 1990. 『성의 역사 제3권 자기에의 배려』, 나남출판.
- Foucault, Michel. 1978~1979.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오트르망(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역.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도서출판 난장.
- Foucault, Michel. 정일준 역. 1994.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기타 참고자료

◎ 언론 자료

경향신문. “노동[복지국가를 말한다](1부)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2011.05.11.

경향신문.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2.1% 달해”. 2011.12.12.

경향신문. “고대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 대학가 확산 청년들이 움직인다”. 2013.12.13.

미디어스. “주체의 기획이 좌초된 20대 세대론을 다시 읽는다(하)”. 2013.10.31.

시사제주. “제주 427명 대학생 한국공항 증산,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 주장”. 2013.09.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한 번의 학교폭력 대책. 현장 요구와 근본 대책 외면”.
2014.03.04.

제민일보. “민선 5기 일자리 공약 체감도 미흡”. 2014.03.31.

제주일보. “제주지역 청년층 에코세대 자살률 높아”. 2013.3.22.

한겨레.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2014.05.16.

◎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

<중학생 A양>(2014. 백상훈 연출. 김현정 극본).

<학교의 눈물>(2013 서유정·이윤민·황승환·허강일·장경수·이광훈 등 연출).

<부모VS학부모>(2014. 박진홍 연출).

◎ 인터넷

e-나라지표 www.index.go.kr,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career.jejunu.ac.kr

【Abstract】

Insecurity, Self-Management and fluid Life of Young People in Jeju Area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emotional aspect of young people and their way of responding in the flexible labor market and unstable job security. First of all this study explores the modes of life of these young people. Flexible labor market in the contemporary society does not guarantee permanent and secure jobs for them. In this circumstance, the young people must adapt themselves to the system, rather than resisting it.

This study draws on some ideas from Michael Foucault for analyzing the modes of life of young people. In particular, his theoretical discussion on 'disciplinary power'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is an important theoretical resources in terms of how lay-actors adapt to neo-liberal economic system through self-management. In addition, this paper employs Zygmunt Bauman's concept of liquid modernity in order to identify the life styles forced by the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applying both Foucault and Bauman, it dwells upon the cases of the young people in Jeju. For the research, there were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young people in the 20s and 30s.

To identify the anxiety felt by the young people in more detail,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after neo-liberalism and Jeju Island's job policies for the young are reviewed. The job policies of Jeju Island, in particular, for the young generation, have focused merely on temporary jobs. More importantly,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le attempting to

evade the direct responsibility, tend to shift it onto the high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college and university. It has totally changed the university culture: now the priority of high education is on employment rather than academic research.

The targets of the in-depth interview had experienced the anxiety at home and school. Some of them had been the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had been discriminated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and social stratum which were frequently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At home, they had indirectly undergone the lives of workers through their parents. This experience gave them the sense of crisis in terms of future life as workers. In Foucault's idea, the young people internalize the neo-liberal market norm through disciplinary power. All of us accept the norm of competition as normal through practices of disciplinary power in everyday life at home and school.

This study tries to categorize the life styles of the young people in Jeju into several types, which is based on data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life styles of the young people in Jeju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whether their job security is guaranteed or not, and whether they realized their wish and demand or not. The former is discussed through Zygmunt Bauman's concept of 'liquid modernity.' According to it, the job security, which had been guaranteed in the initial period of modernity, cannot be maintained in current liquid modernity. In the early phase of modernity workers enjoyed lifelong jobs.

If the job security gives stable life pattern, it can be classified as a type of 'the fixed'. Then, if not, it can be a type of 'the fluid.' The second categorization depends on how each individual differently responds to their life chances. Whereas the people who actively express their life plan are broken down into a type of 'the goal-oriented,' the people who, passively received the conditions without challenges, can be called a type of 'the realist.'

Using such criteria, this study categorized the situations in which that the young people live their life into the following five types. Each type implies the young people's evaluations of themselves and reflections on their own lives. Examining these types, we could demonstrate the critical aspects of our society. ① A type of 'the achievement-oriented' is characterized as 'goal-oriented' and 'fixed.' This enjoys economic stability, job security and social honor. ② A type of settlement, due to realistic circumstances, chooses a fixed type of life pattern rather than self-realization. Usually the people belonging to this type, since not attempting to seek what they want, tends to have repressed desire, regret on their life as regards their frustrated goal. ③ A type of challenge is on the grey area between 'goal-oriented' and 'fluid.' Struggling to obtain what they want, the people of this type must endure tough economic condition and insecure job. ④ A type of wandering seems to simultaneously demonstrate 'fluid' and 'realist.' In this type, incomes and job security are not guaranteed, and further, the people work from economic reason irrespective of their aptitude and plan. ⑤ A type of must delay means that, while doing anything, the people, according to the long-term plan, prepare their future.

The interviewees of this research have had various job experiences which formed their modes of life. In competitive market oriented society they respectively tried to break through the obstacles before them through different ways. In the fluid and unstable society, individuals tend to delay or defer their life-plan and dream, and to try to organize their time for the future. It can be legitimized as the practice of self-management or investment for the future. Sometimes they attempt to compensate for the anxiety of daily life through consumerist life pattern. However, in reality, nothing can compensate for their anxiety and frustration. In order to go beyond the fluid society, particularly in Jeju, in which the young people suffer from competitive market culture, insecure job and giving-up of their life plan, we must give them

opportunities to recover their own identity through changing educational policies from strengthening competitive power to creating cooperative capabilities. First of all, for this long-term change, we should closely examine the conditions of the young people in Jeju, and should create high quality and secure job for them.